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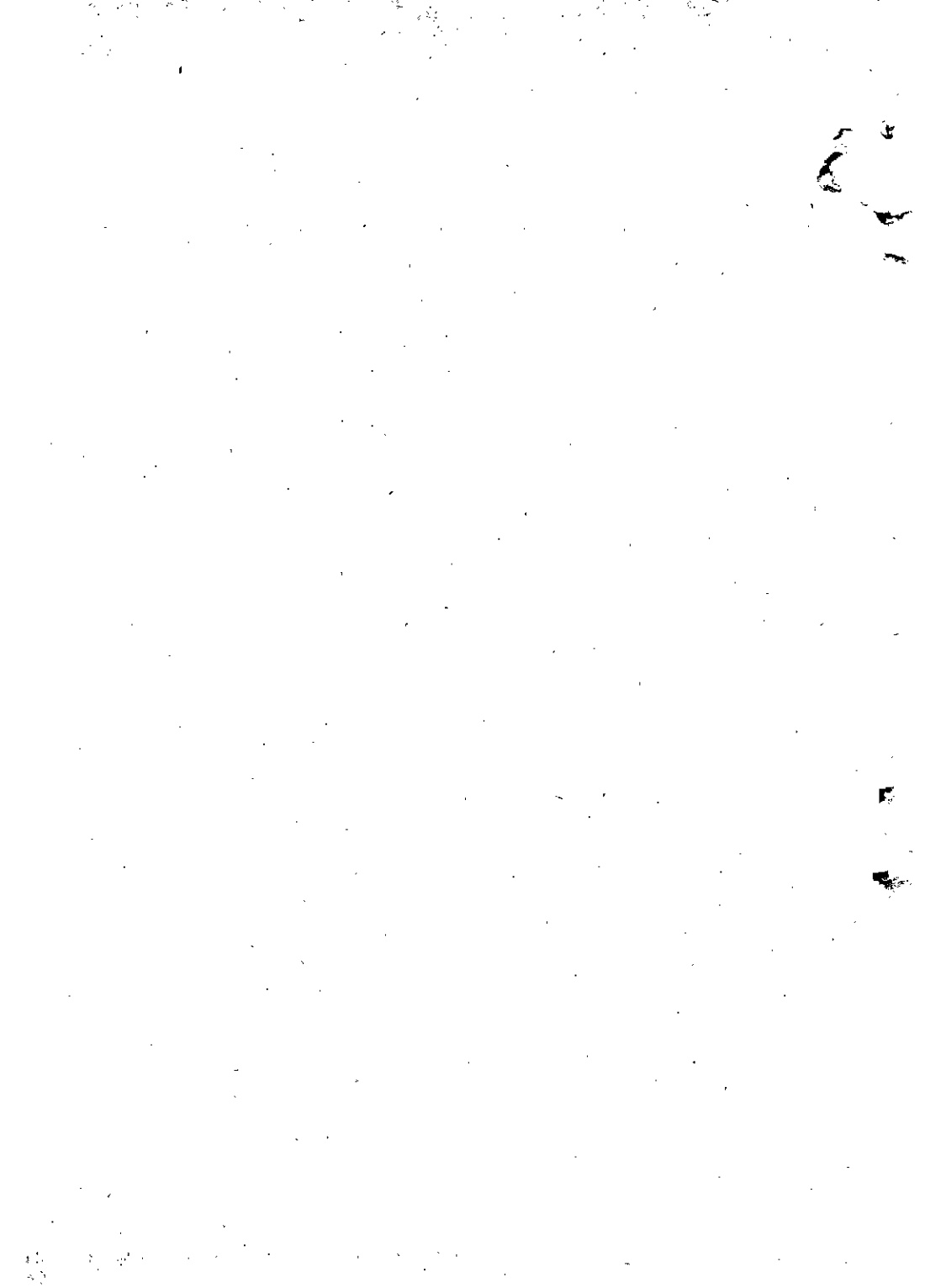
# 速記界

第 18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3	〈卷頭言〉 바람직한 速記人像	副會長 鄭源道
	■ 特輯: 韓國速記史 발글을 위한 回顧	
5	創案當時와 逸波	指導委員 張基泰
10	高麗式의 어제와 오늘	金天漢
18	■ 研究: 英語變異音이 英文速記士에 미치는 영향	盧英民
	〈體育〉	
23	第7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記	外部
25	回 韓非 著 韓非子	金永善
27	會》隨筆—善隣人情	李康允
29	員》—시집가는 남자	유승관
31	文》詩鑑賞/“哭”과 斷想	金銀淑
32	藝》紀行/울릉도	김정민
37	*用語解説	研究委員會
38	◎ 소식란	
39	第10回 定期總會	總務部
43	◇ 定款	
47	會務報告	總務部
	4   安島山の 청년에 부치는 글중에서	
	9   힐튼의 생활신조	
	17   第12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合格者名單	
	26   會費納付案内	
	28   사랑에 관한 名言	
	42   速記料金案内	
	48   編輯後記	



# 바람직한 速記人像

—重責을 맡으며—

副會長 鄭 源 道



우리 速記인들이 大同團結하여 協會를 創立한지도 벌써 10週年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時點에서 돌아볼때 그동안 우리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參與와 정성어린 노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자라왔다고 생각합니다.

國家之本이 民이듯 우리 會員들은 協會의 바탕으로서 그 所任을 다해왔음은 勿論 그간 任員으로서 執行陣에 參與했던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奉仕로 協會의 運營이 本軌道에 오르게 되었음을 致賀하는 同時에 그동안 우리 協會의 發展을 위하여 物心兩面으로 支援해 주신 各界人士와 團體들에 대해서도 本誌上을 通하여 各별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協會가 創立된 지 어언 10個星霜을 헤아리면서 特記한 것은 우리나라는 現在 國內外의 온갖 시련과 挑戰에도 불구하고 社會經濟的으로 來日의 繁榮된 祖國을 建設하기 위한 힘찬 발돋움으로 躍進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協會도 보다 알찬 成長과 함께 速記人의 記錄報國을 통한 社會的 責任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痛感하는 바입니다.

어느時代의 어떤 組織에 있어서나 그 社會에의 寄與와 構成員의 質的向上은 表裏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놓여진다고 봅니다. 各個人의 發展은 協會發展에 첫걸음이 되며 이는 나아가서 國家와 社會에 貢獻됨은 勿論 그것은 다시 會員個人에게 還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會員 여러분은 자신의 資質向上과 品格涵養에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速記法式의 不斷한 改良과 技術研磨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그밖의 社會·言語의 諸現象 즉 社會變遷에 따른 各分野에 있어서의 新用語의 등장이라든지 國語醇化運動 등에도 민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고 봅니다.

요즈음 平生教育의 필요성이 云謂되고 있습니다마는 실로 바람직한 速記人像이야말로 業務의 性格上 그누구보다도 평생에 自己啓發을 위한 教育에 힘쓰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民族中興의 大課業에 全國民이 邁進하는 이時代에 만일 우리만이 그 蹶列에서 停滯한

다면 不進則退와 다름없는 것이므로 우리 速記人 한사람 한사람은 自己發展을 위한 契機를 다룬함과 함께 무철한 使命意識을 가지고 성실하게 맡은 바 責務를 다하는 것만이 記錄報國의 旗幟에 값할 수 있는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協會는 더욱 比際에 發展의인 事業計劃을 樹立하여 社會的인 要求에 副應하고 또한 會員들의 福祉를 向上시키는 방향에서 組織을 통한 理解增進 그리고 協同團結하는 모범적인 團體로 꾸며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이 일을 할까 말까—하여 방황하고 주저하면 거기에는 고통이 생깁니다. 또 결국은 낙망합니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 나아가면 별 일이라도 안 나아가서 안됩니다. 또 낙망한 끝에는 남을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 남을 죽이게까지 됩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방황과 주저는 우리의 큰 원수라고 합니다. 또는 이 몸을 대함에 바치어서 일할까, 자기를 위하여 일할까—하고 몽롱한 가운데 있는 이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도 어느 것이 옳은지 분명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분명히 알 것은 공부도 농사도 장사도 아무 것도 아니하고 놀고 먹고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고 다만 큰 해독만 끼치는 것이외다. 또 언제든 지 다 배워 가지고 다 벌어 가지고 나아가서 일한다고 하면 크게 잘못이외다. 배우는 자나 벌이하는 자나 다 대만을 위하여 기회 올 때까지 한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그만이외다.」

남이야 알진 모르진 오늘 대한의 청년된 이는 대한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스스로 연구하고 참고하여 옳다 하는 바에 뜻을 세우고 그 색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외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족의 다시 살아날 진이외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나거든 그것을 곧 붙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나니라.」 이 말은 우리가 늘 가져 둘 말이외다. 일에 대하여 도덕적과 이해적으로 헤아리어 풀하고 취하면 하되 공공연한 이가 되거든 그렇게 하기를 용감히 결단할 것이외다. 이 용단력이 없으면 대개는 방황 주저하게 됩니다. 복화에 안될것만 보지 말고 장애에 될 것을 헤아리어 순서를 밟아 나아갈 것이외다 한번 놓친 기회는 대개는 다시 얻지 못하게 되는 법이외다.

(島山 安昌浩의 청년에 부치는 글, 勇斷力과 忍耐力中에서)

## 創案當時와 逸波

張 基 泰

### 一. 創案의 決意

몇해전 速記協會에서 行한 展示會에서 肖像畫를 速記文字로 그린 작품을 보고 그 忍耐力에 대해 마음속 깊이 느낀 바가 있었다.



創作이란 실로 첫째가 그와같은 忍耐力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다음 둘째가 素地 즉 創作主題를 살릴 수 있는 知識과 經驗을 바탕으로 한 創案性 없이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세계가 時期이다. 그리고 네째가 성과인데 이 네가지가 완전히 합치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創作物은 生命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말 速記가 하루빨리 생겨나야 할 것이라는 절실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그 時期는 바로 8.15解放이다. 自主獨立國家로서 國會가 구성된다 해도 정작 發言記錄을 담당할 速記士가 없는 國會를 연상해 볼 때 어차피 우리말로 된 완전한 速記學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고안된 것이 全無狀態였던 당시 筆者는 내자신이 그일을 맡아 해야 할 適任者가 아닌가 하고 自問自答한 끝에 해내기로 決意를 굳혔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甘受하고 있는 苦行은 실로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創案者란 創案에 沒頭한에 있어 家率의 안식(安息)을 염두에 두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없는 일이다. 다만 성과를 본 이후에 비로소 가정을 돌볼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이었을 따름이고 지금 이 시각에도 「逸波式은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말 速記士를 양성해 냈고 그들은 기대했던대로 國會速記를 이룩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앞에 놓고 그저 그랬구나! 하는 虛心 오직 그것이 逸波가 그동안 創案과 養成 내지 한결같은 教學生活(時間講義)에 대한 老境과 함께 받는 다시없는 精神的 腦物이기도 한 것이다.

速記界에서 創案當時의 回顧文을 요구하기에 몇자 적으려고 하나 創案者自身이 겪은 數十年前의 行路를 어찌 분으로 엮을 수가 있는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추려 볼 수 밖에 없다.

### 二. 創案當時의 背景

筆者의 號는 누가 지어준 것도 아니요 自身이 「편안하게 물결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흐르는 것같은 速記號의 물결속에 우리말 速記士의 양성과 速記學의 보급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해서 지은 것이다.

따라서 連波로서 創案의 요소인 上記 네가지 課題를 어떻게 對處하게 되었는지 言及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忍耐力은 筆者自身 創案에서 成果를 볼 때까지 버티고 버티는 不屈의 마음가짐을 지켰다고나 할까 이것이고 두번째인 素地問題는 不可不 筆者의 速記生活를 아니 들출 수가 없다.

筆者가 日語速記인 「와세다」式을 완전히 배운 것이 1939年 10月末이었으며 이후 1年間 日本에서 실제 速記業務에 종사(日本 松竹映畫社 記錄部 촬영소內)하다 당시 京城中央放送局(市內貞洞所在)으로 옮겨 역시 速記業務와 기타 雜務를 맡아 했었는데 뜻한 바있어 1943年 7月 每日新報社 記者로 轉職한 것이 倭政下生活의 全部인데 이 新聞社에서 만 2년간을 日語速記를 가지고 우리말을 速記하는 즉석 용역속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말속기 創案을 決意하게 된 素地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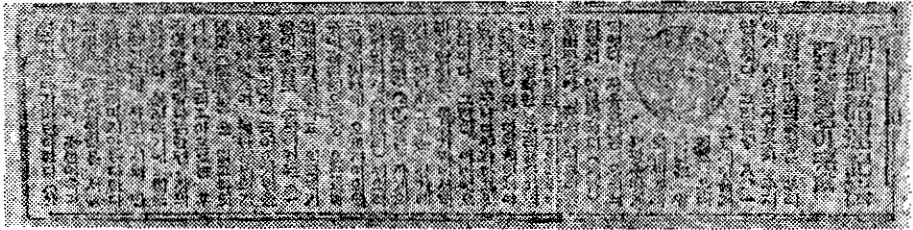
아다사피 당시 韓國語가 통용되는 곳이란 每新과 放送局의 第二放送課정도가 아니었던가 한다. 하므로 우리말 速記學研究에 있어 記號學에 이어 필수적인 韓國語學의 素地가 자연히 마련이 된 셈이니 筆者는 오직 우리말辭典에 의한 낱말정리와 文法과 語態에 관한 정리 및 이상적인 記號配置 그리고 이에 따르는 實用性究明에 필요한 時日이 언제까지 가야 할 것이냐 그때까지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이 먼저 치뤄야 할 苦行이고 이어서 學習生에 대한 成學與否에 따르는 확실한 敎學的證明이 어느정도의 時日이던 될 것인가? 만약 그 이전에 國會가 構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조조감과 불안감

을 이겨내는 것이 또한 뒤따르는 苦行이었는데 그러한 苦行에서 비로소 脫皮한 것이 1948年 4'月이었으니 바로 國會成立 數個月前이요 실로 天佑神助로 筆者는 느끼고 있다.

### 三. 創案과 實驗養成時의 苦衷

日帝時 俸給生活를 하던 터이니 해방이 되었다 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요 市內 鍾路5街 外家の 방 한구석에서 創案作業은 本軌道에 올랐다. 約 8個月을 杜門不出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은 12時가 넘어서 이고 기침은 6時以前이며 소요된 用紙는 직장에 있을 때 速記用紙로 받아서 모아둔 半紙(習字紙)였는데 아마도 1m는 실패 되었을 것이다.

1946年 봄에 마마가 유행했다. 杜門不出하던 筆者가 이病에 걸려서 하마터면 몸보가 뻔했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5월에 妻家인 忠南 鰲川으로 내려가서 最後點檢을 하고 간간이 낚시도 다녔다(낚시는 每日新報 在職時부터 시작한 것이요 당시 낚시터에는 나 이외에 젊은이라고는 단 한명도 없었다. 徵用이란 그리 무서운 것이었다. 筆者도 물론 서울서 徵用狀을 받은 바있으나 速記士이기에 모권을 했다) 6月中旬에 上京을 해서 곧바로 研究原本 한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울新聞社로 閱載願氏를 찾았다. 이 閱氏는 日帝時 내가 日本留學가기 2年前인가 지금의 景福宮앞 雲泥洞에다 「와세다」式 速記普及會를 연 분이요 半年도 못가서 門을 닫기는 했으나 筆者는 이로 인해서 速記의 기초를 배운 터이요 後日 留學을 가게된 단 1名의 弟子格이 된 것이다. 姜駿遠氏도 그때 인사를 나누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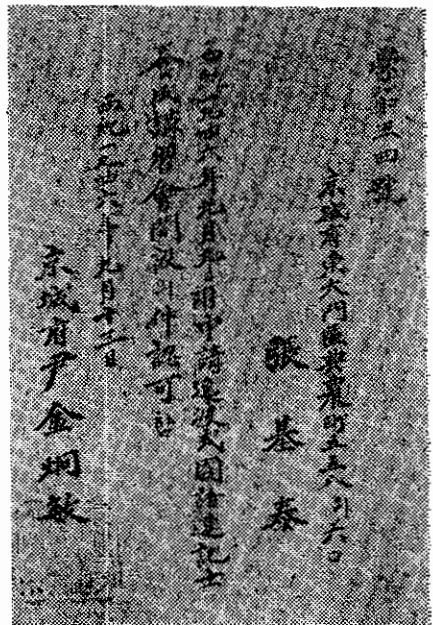
당시 서울 新聞의 創案報道(1946. 6. 20)

다.

新聞 通信에 創案完成이 報道가 되고 (別表 參照) 放送局에서 講義까지 했으며 당시 崔鉉培博士도 면담하는 등 알릴만한 곳을 찾아 알리는 한편 후원자를 얻으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물 많았다. 親知를 두루 찾다가 지쳐서 고민하던 중 閔氏로부터 學習生募集부터 시작하고 餘他는 후에 구하는 것이 어떠한지 하는 권고를 받아들이 忠武路 2街에 學生募集場所를 차리고(서울新聞社 呂記者 앞선) 취지문 筆用紙는 外四寸의 기종으로 갖추었으며 食口들은 妻家에서 못 올라온 재나는 南營洞의 여동생에게 寄食하면서 지냈다.

모집은 끝났는데 경제적 후원자는 여전히 구하지 못하고 昌信洞 돌산 꼭대기 國校生들 夜學校室의 하루하루는 나나 一期生이나 國會를 向한 先驅役軍이 되리라는 굳은 야망이 없었던들 그대로 와해되었을 것을…… 참 아슬아슬한 曲藪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도 3時間이 왜 그리 후딱 지나가는 것인지 그 열의가 바로 오늘의 速記號의 서판이 되었음을 우선 상기한 者 그 몇명이나 되는지? 이윽고 잠시 明洞으로 옮겨 서울市長 認可를 역시 韓國殿初로 받았는데 그 認可自體가 韓國初有의 일인지라 名士의 推薦狀을 받아다 제출한

기억이 새롭다(別表 參照). 場所는 다시 鍾路 3街 네거리로 옮겨졌으나 그 장소가 또한 걸작이어서(1期生 李鍾德君家二層) 舊式韓屋 안마루를 거쳐서 굴속같은 通路를 신을 돌고 드나들면 일 역시 場所問題와 逸波라는 號와는 참으로 대조적인 면이 있어 逸波式 重鋼들처럼 教學條件이 惡條件인 예는 아마 없을 것이다. 불고기 白飯 아닌 매운 연기만 내는 풍토가 겨울





난방구실을 하기 二回를 보내고 1948年 4月 10名도 못되는 速記士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收入이란 짐새가 고작이었고 酒量이 큰 筆者는 그것도 고민이었다. 간판도 1期生이 썼으니 이러한 學院 환경이 또 있을까? 더구나 1期生 졸업 무렵에야 2期生을 募集했는데 이 또한 學院經營치고는 前無後無한 일일 것이다

卒業式과 祝賀도 그 장소에서 그 일꾼들로 來賓은 閔載禎氏뿐인 참으로 조촐한터이었으나 2期生은 1期生の 壯途에 호뜻해 했고 이제 逸波式은 1年内完成이란 정리도 끝나서 오직 自奮自讚이 있을 國會의 速記業務擔當者 배출에 있어 이렇듯 逸波나 學習者外에는 그 누구도 없애시피한 그러한 가운데 逸波式의 第一段階段業은 이룩된 것이다.

#### 四. 逸波式의 特色

위와같이 筆者自身만의 글이 되었는데 다시금 45年 당시를 회고하면 韓國人으로 日語速記士란 京城日報에 몇명 있었고 每新의 方氏라는 同僚가 1人, 他處에 한두명 더 있었는지 아닌지 未審인데 아마도 姜駿遠氏外는 우리말 實力이 부족했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제각기 創案에 나섰지만 그 후 발표된 것을 보면 한결같이 重母音 전부가 생략이 되어 있어 한글과 速記號의 一致가 안되는 다시 말해서 速記爲主이지 學의 體系는 무시를 해버린 것이 우선 逸波式과 시초부터 두드러지게 틀리며 逸波式은 다시 基本文字는 速度性을 내는 記號의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시키고 變字라고 해서 頻用語音字를 따로 索出해서 記號의 간편화를 기했으며 토記號 낱말 略字法등 원칙적 기호를 가지고 응용적 기법을 되도

록 살리는등 教學의 體系를 통한 學習爲主式으로 적여 있어서 他式과는 은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으니 이를 筆者는 소위 每新在職의 덕택으로 여기고 있다.

筆者가 「와세다」式 출신이니만큼 個音別 記號를 案出함에 있어 「와세다」式 基本記號를 많이 이용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랜 세월을 손에 익힌 기호인지라 記號 個個의 筆記의 特性을 知悉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말 語音의 類度와 대조해가며 유리한 것을 살리되 그 語號가 日語의 記號라 해서 배척할 수는 없는 터이다. PITMAN의 案出圖에 따른다 해도 記號自體는 世界共通이니만큼 구태여 그리할 필요가 없었다.

요는 각 품사의 略記號構成과 토記號의 案出을 어떻게 해야 쓰기 쉽고 배우기 쉬운 것으로 하느냐가 더苦心을 한 대목이다.

현재 逸波式을 보아 알듯이 각 품사의 記號가 一目瞭然한 點(따라서 일파식速記文은 각 품사별로 완전히 분리가 된다) 및 教學的으로 몇가지 略法의 原則을 내세운 點등은 실로 후배양성에 있어 좋은 성과를 보게 한 장점이니만큼 후배가 또 후배를 교육함에 있어 무리가 아니가는 이러한 點에까지 신경을 썼기에 일파식을 筆者自身 學의 體系 云云하는 연유가 이에 있는 것이다.

기호라해서 語法 文法을 무시하고 速記的으로 處理를 하려는 의도는 일파에게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逸波自身이 日語速記의 우리말 이용속기사이었지 우리말 속기사는 아니었던 處地에서 교육에 입해야 할 경우에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記號構成이라고도 하겠으니 이점 他式과는

완전히 틀리는 出發이었다.

그런만큼 記號의 敎學的構成面에서 차이가 있는 他式이 보여준 양성상 熱과 誠은 감탄不辭이며 이제 회갑이 지난 姜駿遠氏나 회갑을 1年 앞둔 李東根氏나 2年 앞둔 筆者나 뒤미쳐 떠라드는 모두가 餘生 또한 速記를 떠날 수 없는 處地임은 이제 생각하면 愚에 가까운 일이되 韓國

의 速記界가 이러한 創案者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特記할 일이 아닌가 한다.

逸波의 염원은 梨大講義에서 얻은 8個月完成이 가능한 再整理된 기초보급이 마지막 일일전대 아마 그 實現을 餘生中 볼 수 있을지는 未審이다.

(協會 指導委員)

### \* 「힐튼」의 생활신조 10개항 \*

註: 「힐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조직과 명성을 가진 「호텔」왕이다. 여기에는 그가 성공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그의 생활신조를 소개한다.

1. 자기 자신의 특수한 재능을 개발하라.
2. 크게 되라. 생각을 크게 하고 행동을 크게 하고 꿈을 크게 꾸라.
3. 정직하라.
4. 열성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라.
5. 자기 재산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고, 자신이 재산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
6.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떠한 난제에도 반드시 해답은 있는 법이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라.
7.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8. 다른 사람을 되도록 높이주고, 절대로 알잡아 보지말라.
9. 삶을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라.
10. 계속적으로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라.

## 高麗式의 어제와 오늘

金 天 漢

나에게 주어진 제목에 대해서 주로 高麗式 速記를 중심으로 하여 그 史實을 發掘하고자 시도하는 바, 나는 이를 五期로 나누어 第一期로부터 逐次的으로 적어 나가려고 한다.



### 第一期 搖籃時節

내가 최초로 速記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어렵듯이 그 概念을 파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0年前인 梅洞公立普通學校(現在 梅洞國民學校) 5學年에 재학중이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1937年 어느 날 級友 ①朴明俊이라는 班長도 지낸 바 있는 그가 나에게 速記에 관한 이야기와 더불어 나의 好奇心을 자아내는 말들을 나에게 들려준 것이 언젠가는 速記를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간접적인 着想을 일으키게 하였으리라.

註 (1) 그후 동창생을 만난 기회에 알아 본즉 朴明俊은 故人이 되었다고함 梅洞國民學校를 나와 나는 逆境을 이기며, 13對 1이라는 치열한 競爭속에서 大東商業學校에 몸을 담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엄청난 抱負를 가졌다. 아직 세상의 밖에 묻어 보지 못한 순진하기

만 한 나는 맑고도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靑雲의 뜻을 품어 보았다.

나의 장래는 내가 決定해 나가야 할 판이었는데 화려한 꿈들 중의 하나는 우선 學業에 있어서는 平均점수를 99點으로 해 보자는 작전도 세워 보았다.

누구나 그런지 모르겠으나, 모든 면에서 나의 꿈은 現實的으로 여러가지 장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한가지 技術으로써 速記라는 것을 학창시절에 이루어본 것이다.

그러면 速記를 언제부터 배웠느냐

내가 중학교 1학년때 「少年俱樂部」라는 少年雜誌가운데에서 속기 廣告를 본 것이 速記를 배우게 된 直接動機가 되었다. 그 때 광고에 速記料 1시간에 ②10円이라는 廣告 文面도 있었다.

註 (2) 그 때 面 書記의 봉급이 20円이 만이 보통이었다고 기억됨.

내가 그 때 실은 學業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逆境에 처해 있었다. 즉 苦學이었던 것이다. 이 때 나는 과연 돈벌이로서도 速記는 배울만한 것이로구나 하면서 日本의 早稻田式 速記普及會에 안에서 청구 끝에 講義錄 購讀을 시작하였다. 그때가 아마 1938年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때 손을 팔리 놀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주산에 있어서도

全校 6명의 珠算選手團中の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으니까……

속기를 배운지 1年 될까 말까 했을때에 나는 교사의 강의를 速記에 이용하였다.

그 때 제일 인기를 끈 속기는 英語先生의 번역을 速記 文字化하여 공부하는배 있었다.

그 때 많은 級友가 나에게 번역速記文을 줄라 대는 바람에 진땀을 뻘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早稻田式 速記普及會에 速記文의 添消 依頼를 했던 바 그 답에서 나의 속기문자가 엉망이었음을 알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마 2年이라는 세월을 걸려 速記를 완성하기에 이르니 總 3年이라는 時日을 獨學으로서 이룬 셈이다

내가 速記를 많이 익히고 있을 때 어느 날 日本의 中根式 速記 創案者가 내가 다니던 학교에도 찾아와 速記 講演을 한 적이 있었으나, 나는 中根式보다는 早稻田式 速記가 우수하다는 판단아래 그대로 早稻田式 速記法式을 밀고 나간 기억이 있으며, 그 때 많은 學友들이 速記책을 구입하였으나 그 때 速記로써 성공한 사람은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속기를 일단 「마스터」하자. 학창시절부터 실지 활용해 보려는 강렬한 意志로 며기 저기에서 강연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적극 거기에 참석하여 速記를 활용해 보았다.

1942年 12월에 大東商業을 졸업한 나는 1943年 5月頃에 東京에 本社를 둔 同盟通信社 京城支社에서 시행한 速記士 채용 시험에 30名 應試者 가운데 나 혼자 합격

된 것은 감명깊은 나의 기억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 在學時節의 속기 「마스터」로서 내가 직업속기사가 되리라는 것은 사실은 꿈도 꾸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여하간 나는 速記士의 직업을 잘 擇하였구나 생각하는데 왜 速記士 職業을 후회않고 잘 했다고 하느냐?

첫째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 때 課長이니 局長이니 하는 職位에 얹아 있어도 간섭을 받는 것이지만 그때 나는 日本 東京에서 오는 電話速記 같은 것을 주로 맡았을 때 자기가 행할 일을 하면 되었고 그 일은 간섭을 받을 성질이 아니었다.

둘째, 時間의 활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자기가 행하는 速記事務 이외에 많은 시간의 善用을 할 수 있었다는점 그 때 나는 「아카네」(赤根) 速記事務所라고 하는 사무소에도 다니면서 속기를 하며 課外收入을 圖謀해 보았다.

세째, 速記는 各界各層의 말을 써야되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반적인 常識을 涵養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速記는 동시에 자기의 修養과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 점이다.

네째, 職業速記士였기는 하지만 직업을 떠나서도 일상생활에 많은 利用價値가 있고 나는 현재도 그 利點을 살려 그의 이용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點이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나는 速記士의 職業을 가졌음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速記로 향한 착상을 일으켜 이를 배워 익히고, 解放前까지 驅使했던 이 時期 8~9年 동안은 나의 速記史의 第一期이며, 이를 나의 速記史

에서의 搖籃時節이라고 일컬어 본다.

왜냐 하면 이 搖籃時代를 거쳐 第二期 즉 우리말 速記法創案과 그 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기는 대개 1945年 8.15解放 이후 1950年 6.25 前까지를 일컬어 말해 본다.

## 第二期 우리말 速記의 創案 및 草創 期の 活用

나의 生涯의 최대의 감격— 아니, 우리 韓民族의 최대의 감격이었다. 바로 1945年 8.15의 歷史的인 날, 解放을 맞이한 것이다.

내가 解放을 맞이한 땅은 南쪽 섬 濟州道였다.

나는 濟州道에서 3개월 동안 日軍에 徵兵되었다가 解放을 맞이하였다. 그 몇 개월 동안에도 나는 日本에서 放送되는 「라디오」速記등으로 편한 생활을 했다.

내가 解放되자 서울에 발을 디더 좋은 것은 그 해 9月3日인가 한다.

解放을 맞아 나는 새로운 나를 깨달았다 (옳지! 우리는 過去 36年 동안 日帝下에서 우리 高유의 言語들이 抹殺 당할뻔 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日帝의 속박을 벗어나 우리말도 찾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우리 民族을 위해서 행할 일이 생겼구나, 자 우리 말을 우리말 速記法으로 記錄해야지! 마치 그것은 나에게 내려진 하나의 運命이요, 하늘이 내려 주신 使命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나는 곧 우리말 速記法을 創案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解放된 후에도 나는 通信社에 몸을 담게 되었다. 日帝때 同盟通信社에 근무하던 韓國人中에서 曠자는 解放

通信社 曠자는 共立通信社, 曠자는 聯合通信社, 曠자는 合同通信社등을 차려, 나는 그때 共立通信社에서 放送課長이라는 職 脚아래 주로 日本에서 放送되는 「뉴스」 방송을 비롯하여 時事解説 등을 즉석에서 速記로 受信하고 번역하면서 바쁜 日課를 보내면서, 틈틈이 時間을 최대한도로 割讓하며 우리말 速記를 創案해 나가는 데 약 1年 정도의 時日 所要로 解放 1周年 되는 1946年 8月 15日 共立通信社에서 직원 및 親知가 모인 가운데서 高麗式 速記法을 발표하였다.

나의 주장은 언제나 그렇다. 즉 내가 써보는 速記는 아무리 理論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시험을 거쳐 손색이 없다고 할 그때에 가서 비로소 발표하곤 한다. 速記學에 의해서 制定을 본 速記文字는 그 시험이 先行되고 後發表의 形態를 취해 왔다.

내가 행한 速記法의 발표와 더불어 나의 직접적인 시험은 好評을 획득하여 여기 저기서 殺到해 오는 注文 速記로 무척 고달프고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여기서 나의 最長時間의 速記履曆을 소개하는 것도 無意味하지는 않으리라.

하도 오래된데다가 6.25前의 일이라서 지금 정확한 날짜 등을 지금 明記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나의 最長速記記錄이란 어느 무더운 여름날 5박 一週日 동안을 두고 매일 오전 오후에 걸쳐 7,8 시간씩 李舜臣將軍에 관한 海軍本部 주최의 좌담회다.

머운 회의장에 선풍기는 비치되었다고는 하나 여러 時間 계속 速記를 하려니까 齒輪 잠이 오며 나의 速記文字는 흐트러 지는데 그것을 번역해 놓느라고 진땀을

때에 애 썼던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數個月 동안의 苦闘 끝에 번역을 완수했을 때의 그 흥분한 기분도 다른데 비할 수 없었다. 그 때 每時間 받는 속기요금에 의해서 報酬를 받으려는데 금액이 엄청나서 담당직원의 입장이 곤란했을 때 내가 직접 당시의 孫元一 海軍總參謀長을 만나 이쪽 요구대로 妥結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좌담회에 참석한 名士로서는 李丙熙씨, 洪鍾仁씨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이리 저리로 速記實務에 허덕이던중 1946年 어느 날, 서울식 速記創案者 姜駿遠씨가 共立通信社로 나를 찾아왔다. 姜駿遠씨가 그 때 나에게 전해 준 얘기는 放送局에서 광고로 立法議院에서 速記士를 모집하니 우리 速記人들이 共同步調를 취하자 하면서 모인 速記士 5名이 立法議院事務總長 全奎弘씨와 접촉하여 1946年 12月 12日 12時 第1次 會議에서부터 執務케 되었다.

여기서 國會事務所 議事局 速記課에서 1969年 발행한 「速記概觀」의 4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1946年 9月 20日에는 當時 美軍政廳이 立法 諮問機關으로 南朝鮮 過渡立法議院을 設置하게 되에 여기에 速記를 採擇하고자 速記士 採用公告가 美軍政廳 人事行政處로부터 公告되었다. 이에 對處하기 爲하여 朝鮮語 速記學會와 朝鮮速記文化協會는 數次에 亶하여 協議를 거듭하였으나 實務 可能한 速記士의 數가 너무나 적은 狀態이나마 負擔된 速記業務를 堪當키 困難한 實情으로 速記 本來의 使命을 完遂할 수 없을 것이라는 論이 支配的이어서 그 態度 決定을 一時 躊躇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어진 速記實務의 機會를 그대로 拋棄해 버릴 수 없는 事情이니만큼 모든 苦難을 克服하고 速記人의 任務를 誠心껏 盡力할 것을 信條로 삼고 그 職務를 擔當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0月 1日 附로 姜駿遠, 朴寅泰, 朴準泰, 朴鍾院, 金天漢 等 6名은 待遇를 優待해 줄 것과 速記士 養成機關 設置의 方案을 講究하여 줄 것을 條件으로 過渡 立法議院의 速記業務를 擔當하기로 하고 아울러 7名의 速記 養成員을 採用하여 姜駿遠식 速記를 教授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말 速記陣은 1946年 12月 12日 午後 1時 金圭植 博士外 52議員이 參席한 南朝鮮 過渡 立法議院 豫備會議에서 부터 그 活動을 開始하였으니 우리말 速記實用的 巨步를 내딛은 歷史的 瞬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官에서는 姜駿遠씨의 서울식 速記法을 教授하여 速記士의 養成을 보게 되고, 民間養成機關도 續出하여 우리 高麗式養成機關도 1948年 9月 龍山區 考昌洞에서 高麗速記專門學院이란 명칭으로 開設, 그후 장소를 中區乙支路로 옮겨 後進養成에 힘쓰던 중 6.25動亂으로 중단된 것은 억이나 슬픈 일이었다.

### 第3期 激動期

6.25의 悲劇은 잠시나마 나의 速記人으로서의 생활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正義는 우리 편에 있었다. 9.28 收復과 더불어 나도 다시 몇명의 速記士와 함께 國會에 復職을 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서울로 收復할 때까지의 3個月 동안 國會에서는 速記士 없는 變則

의인 회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다시 國會에서 速記가 그 活路를 찾았다는 것은 우리 速記人에게 더 없는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中共軍의 不法參戰은 우리에게 1.4後退하는 비극을 다시 자아내고 따라서 우리 速記人들도 釜山으로 國會를 따라간 것이다. 여기서 避難地 釜山에서의 速記士生活은 계속되었다.

자기의 後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내가 創案한 速記를 愛用해 왔다.

내가 創案過程을 詳述하지는 못했지만 速記를 學과 術의 兩方面에서부터 研究하고 닦아 왔음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그 바쁜 시간에도 創案의 의욕은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으니 所謂 幾何學式原理로 시작하여 완성 발표된 것이 1946年 8月15日이었으나, 나는 이것으로써 만족하지는 못하고, 이 激動期에 들어서도 시간을 쪼개서 速記法改良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한편 이를 실제 활용하면서 그 율음과 그물을 판단해 갔다.

나는 오늘날 생각해 본다—나에게 부여된 全時間을 연구에만 몰두하였던들 그리고 후배양성에만 열중하였던들 오늘날의 우리 高麗式速記는 좀 더 다른 樣相을 띄었을 것이라고—

나는 한편에서는 바쁜 速記士의 實務生活이요, 한편에서는 高麗速記의 보다 나은 연구요, 또 한편으로는 후배양성과 高麗式速記普及이라는 다면적인 활동을 해야 하겠으니 나의 몸은 洪吉童 아닌 洪吉童 노릇을 해 보았다.

내가 1.4後退 때, 釜山에서 國會速記士

로 있으면서 兼務한 것만 쳐 보더라도 中央通信, 經濟通信, 國際新報, 大東新聞社 등의 外信部長을 兼任하는데 실은 日本에서 방송되는 「뉴스」 혹은 時事解説등을 日語速記로 受信하여 우리 말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避難地 釜山에서 있었던 두가지 일은 하나는 大韓傷殘軍人會에서 高麗速記式的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1951年 9月 釜山市 西面에 高麗速記專門學院을 다시 설치하여 후배양성에 힘썼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의 日課는 새벽 5時頃에 日本 東京에서 방송하는 「뉴스」에서 시작하되 밤 늦게 速記教育을 마칠때 까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文字 그대로 縱橫無盡의 활약을 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던 중 하루는 大邱에 자리잡은 陸軍高級副官學校에서 金中領이라는 副校長이 臨時首都 釜山에 있는 國會 速記課로 金震熙 速記課長을 찾아와서 「누가 速記를 제일 잘하느냐?」고 물은 때 대해서 「金天漢씨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因緣이 되어 金中領이 나를 만나게 되어 陸軍高級副官學校로 와달라 하며 文官으로 대우를 하되 副官級으로 발령을 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내가 그 당시 그 제의를 쾌락하기에는 내가 그때 釜山에서 맡고 있었던 일이 너무 막중했다. 따라서 金中領과 熟識한 陸軍高級副官學校에 高麗速記專門學院 卒業生 4名을 보냄으로써 同學校에서 高麗式 速記法을 教授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그 동안 수차례 陸軍高級副官學校를 방문하면서 速記 授業實態도 파악해 보

곤하였던 바, 어느 때 한번은 大邱에 올라 간 집에 東邦速記學院으로 李東根先生을 찾아가서 지난 날의 情을 나누며 그분과 함께 지낸 즐거운 추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遷都와 더불어 대부분의 國會速記士들이 國會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그런데 나는 그때 釜山日報社에서 通信部長職을 맡게 되어 編輯局長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가면서 釜山日報社 3층을 速記學院으로 사용키로 승인을 받고 나는 釜山에 잔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 서울 橋南洞에는 高麗速記技術學院이라고 改稱하여 다시 開設하여 후배양성에 힘쓰므로써 이때부터 釜山學院을 分院으로 하여 상호 紐帶關係로 學院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金星漢先生이, 나중엔 黃重秀先生이, 釜山에서는 내가 學院을 경영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釜山에서의 생활도 어언 8,9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다가 1958年 11月에는 釜山日報를 辭職하여 서울로 上京하였다.

나는 그 당시 中央通信社에서는 特信部次長 週刊檢察新聞社에서는 편집국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黃重秀先生이 心血을 기울이는 학원원에서 心的援助를 기울였는데 黃重秀先生이 院長으로 있으면서 出血을 무릅쓰고 1966年 3月에 高麗速記技術學院을 閉鎖할 때까지 바친 速記界에서의 功勞는 마침내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에서 認定을 받아 速記界有功者로서 黃重秀先生에게 표창과 더불어 感謝狀이 수여되었음은 時宜에 옳은 일이었으며 여기에서 再三 黃重秀先生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가 發足하기 이전 그 前身으로서 1955年 11月 13日 창립을 본 大韓速記學術協會에서 本人이 副會長의 자격으로서 司會를 맡아 同協會의 憲章을 통과시킨 바있다. 당시의 會長 張基泰씨는 一身上의 事情으로 司會를 보지 못하게 되어 本人이 출석하여 司會를 본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速記課 第3係長이던 金鎮基씨가 同 發起準備委員會 委員長으로서 활약한 바있다.

國會內的 速記士養成所에서 高麗式速記法의 채택은 1968年 3月에 逸波式과 같이 共同으로 채택된 일이 있었으나, 1969年 3月 議會式 速記法의 創案과 더불어 同法式의 教授로 前記 兩法式의 教授 中勝이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러니까 6.25後 1969年 3月 이전까지의 기간을 高麗式 速記의 第3期 激動期라고 불러본다.

이 激動期에서의 高麗式 速記의 보급현황을 대략 들추어 보면 1953年 9月 善隣商業高等學校에서 速記教育, 1956年 7月 市立서울成人學校에서 속기교육, 1954年 4月 淑明女子大學校 商經大學에서, 1956年 1月에는 陸軍本部 政訓監室에서 政訓將校에게, 1957年 5月에는 昌德女子高等學校에서 1957年 8月에는 馬山成人學校에서, 1959年 3月에는 誠信女子高等學校에서 속기교육을 실시하였음을 들 수 있다.

이 激動期에 있어 第二期인 創案期와 活用期에서 사용하던 速記法式에 많은 개량을 가해 왔으며, 여기에는 金星漢先生과 共同步調을 맞추어, 말하자면 공동체에 의한 개량작업이 이루어진 셈이다.

#### 第四期 沈滯期



第三期의 激動期를 지나 우리 高麗速記法式은 沈滯期를 맞았다.

즉 1969年 3月 議會速記法式의 등장으로 國會의 速記士養成所에서 高麗式速記教授의 중단이란 말하자면 최후의 堡壘를 상실한 셈이 되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우리 高麗式速記를 볼 때 民間養成機關도 없는 터이니 완전한 공백기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高麗速記法式으로서 民間速記學院과 議會內에서 速記士養成教育이 계속되었다면, 오늘의 速記界의 版圖는 달라졌으리라.

그러나 다행한 일로서는 이제 우리 速記界에서는 모든 速記法式을 초월한 하나의 團體-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가 발족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速記人이 大同 團結되어 있는 기쁨을 여러 速記人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바이며, 그동안 몇몇 創案者가 速記의 元勳의 일을 遂行한 때 비해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를 오늘날의 土台로 구축한것은 여러 速記人들의 勞苦가 지대했음에, 나는 여기에 여러 速記人에게 감사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며 특히 이들의 밀반침格으로 자기의 일처럼 추진해온 金鎭基 速記課長, 그리고 鄭源道 速記擔當官에게는 誌上을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우리 高麗式速記의 沈滯期는 1976年 가을까지 그러니까 약 8~9年동안 계속되었다고 하겠으며 그 동안에 결실을 본 것은 通信教育을 1975年 4월에 실시하여 高麗速記通信教育會가 발족했다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1969年 4月 19일에 高麗速記研究普及會가 발족을 보아 좀 더

참신하고 時代에 적응한 速記法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 第五期 再建期

우리 高麗式 速記가 再建期の 첫 발을 내 디었던 것을 나는 1976年 9月 1日부터 라고 본다. 그 때 단 한 사람의 速記生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장소는 中區 北倉洞에 자리잡은 新世界速記學院에서 이다.

盧英民先生이 新世界速記學院을 경영하게 되자 그는 英文速記를 가르치며 나는 國文速記를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 실은 교통바와 시간을 들이며 學院으로 나온다는건 여러모로 보아, 理致에 맞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나는 沈滯期라는 동안에는 주로 日語와 英語를 가르쳐 왔으나(英語는 初歩와 中學程度를 주로 하였음) 이제 速記生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니 기뻐하면 速記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나에게 負荷된 임무인 것처럼 느껴져서 다소의 희생적 각오로 여기에 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再建期の 첫 발을 내 디는 때는 여러가지 애로가 뒤따르기 마련이나 이와 같이 孤軍奮鬪하던 중에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主權로 1976年 冬季 無料速記講習生을 모집함을 계기로 東邦速記學院과 新世界速記學院으로 學生을 兩分하여 받았다. 이 때 國會 速記士 2名, 柳智永씨와 申熙東씨, 그리고 金星漢先生이 出講을 해주었으며 말하자면 再建期에 첫 발을 디딘 후 최초의 일이라서 그 成績이 뜻대로 되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初志一貫이라는 말이 있다. 여

기서 銘心해야 될 것은 一喜一悲는 藥物이며 七顛八起의 자세로서 高麗速記를 한번 살펴 보자는 一念뿐이다. 앞으로 계속 大韓速記協會의 一翼을 담당하여 밀접한 紐帶關係를 유지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으며, 民間에서의 養成機關으로서 東邦과 雙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再建期는 일정한 期間을 현재 정해 놓지 못하고 있다. 아마 再建期가 지나면 다음에는 隆盛期가 올지도 모르겠다.

나는 高麗速記가 再建期를 지나 隆盛期를 맞이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요할 것으로 본다.

對內的으로는 速記法式을 더욱 開發 개량하여 획기적인 手筆速記의 완성을 기하여 충실하고 실력있는 速記士를 양성해야 되리라고 보며, 對外的으로는 速記士의 需要處가 확대되어 우리 速記士를 迎合해 주도록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나에게 原稿를 청탁하여 速記와 더불어 살아온 세월의 호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大韓速記協會에 감사의 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에 이 글을 體系的으로 다듬어 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음을 말하고 이것으로 拙稿를 마친다. (高麗速記 創案者)

## 제12회 국어 영어 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1977. 4. 17

場 所: 同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名單—

#### 國語速記

- 1 級 김재하 박인혜 이연희 고영원 오광웅 윤상운 정재영 김정덕 김혜석 김경희 박명옥 황복순 박연자(計 13名)
- 2 級 지화일 노태희(計 2名)
- 3 級 김재성 정보영 이경희 이화련 우정순 장순임 이영화 윤용우(計 8名)
- 4 級 하규섭 이도원 박원경(計 3名)
- 5 級 신용욱 김원주(計 2名)
- 6 級 조은정 하연섭 정영운 김홍열 고경효 윤경봉 고준일 채병희 이계영(計 9名)
- 7 級 이무성 조규철 김상순 선우명완 김현희(計 5名)

#### 英語速記

- 8 級 한람순(計 1名)

# 英語變異音이 英文速記士에 미치는 영향

—國際會議를 中心으로—



盧 英 民

(신세계 速記學院長, 前理事)

—目 次—

(前號掲載分)

## 一. 緒 論

1 研究의 動機와 自的

(今號掲載分)

2. 研究의 方法 및 資料

3. 先行研究

## 二. 本 論

1. 音의 添加變異

(가) 喉音(I) 앞에 [ə]의 添加

(나) 兩脣音[ə]의 添加

(다) Exerescent [P]

(라) Exerescent [t]

(마) 侵入子音→正規發音

2. 脫落變異

(가) Syllabic [n]

(나) [t]→[-n.]

(次號掲載分)

## 3. 音價變異

(가) Laterally Released

① [t]→[tl]

② [t]→[-n.]

## 4. 交替變異

## 5. 同化變異

(가) 前進同化

(나) 逆進同化

(다) 相互同化

(라) 有無聲同化

## 6. 異化變異

## 7. 資料分析

## 三.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

## 2. 研究의 方法 및 資料

本 研究의 研究方法은 筆者가 多年間 各種國際會議에 參席하여 그 會議가 끝난 後에 Listening이 가장 안된 部分을 유인 ㅅ에 인해된 原文과 速記原文을 비교하여 그 Listening이 잘못된 原因을 파 해쳐

서 部分別로 체계화하여 整理하였으므로 本資料는 生생한 資料라고 할 수도 있겠 다.

### ① 資料調査

1968년부터 1975年 9月까지의 國際會議 記錄會錄에서 本文을 活用하여 收錄하

였다. 年度別로 會議錄을 羅列하면 다음과 같다.

a. 1968年度

*National shorthand Reporters Association, 19th Annual Seminar, Seattle, Washington August 6-7, 1968.*

b. 1969年度

*Proceedings of the 5th General Assembly and the 7th Council, The Asian parliamentarians Union, TAIPEI, Republic of China, Nov. 24-28, 1969.*

c. 1970年度

*Proceedings of the Sixth General Assembly and the 9th Council, The Asian parliamentarians, Union, Saigon, Republic of vietnam, Dec. 08-12, 1970.*

d. 1971年度

*Proceedings of the 5th WACL, the 17th APACL and 3rd WYCL Conference, 21-26 July, 1971, Quezon City philippins*

e. 1972年度

*Proceedings 2nd Executive Board meeting. The Asian Cultural Center, The Asian parliamentarians' Union. TAIPEI Republic of China August 13-14, 1972.*

f. 1973年度

*Documents o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Related papers on International monetary Vol. 11. Nov. 1973. printer by Department The Bank of Korea.*

g. 1974年度

*13th IFAWCA CICA Convention. Proceedings on April 8-13, 1974. Tokyo JAPAN*

h. 1975年度

*Proceedings on Sep. 7-13, 1975 Seoul Korea.*

3. 先行研究

韓國 90年의 英語敎育 歷史上 連音의 變異現象에 對한 研究가 英語速記士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例는 없는것 같다. 다만 英語敎育에 있어서의 發音問題라든가 音聲學的인 面에서라든가 音韻論의 측면에서는 여러學者들 間에 활발한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

## 本 論

### 1. 音의 添加變異

(가) 暗音 [I] 앞에 [ə]의 添加

暗音 "I" (Dark I)가 앞에 弱母音 [ə]를 添加하는 수가 있다. 원래 暗音 "I" 의 位置가 [ə]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自然스러운 現象이라고 보겠다.

※例

well call sell till sail feel

(나) 그리고 three [θ(ə)ri], please [p(ə)liz]와 같이 強調해서 發音할 때 [ə]가 挿入 첨가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이 兩唇音 앞에 다른 子音이 왔을 때 그 사이에 [ə]가 挿入되는 경우가 있다.

※例

dwarf smile film nationalism  
truism Sophism

(다) Excrescent "P"

鼻音다음에 閉鎖音 또는 摩擦音이 올때

다음과 같이 다른 閉鎖音이 挿入, 添加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添加되는 子音을 侵入子音(Intrusive Consonant)이라고 한다. 이 現象은 美音에서 현저하다.

※例

warmth something comfort  
dreamed

暗音 "I" (Dark I)가 앞에 弱母音(a)를 添加하여 (a)에 가까운 發音을 내는 것이 自然스러운 現象이라 함은 前述한 바 있으나 이것이 連音狀態에서 날 때에는 우리가 잘못 알아 들어서 다른말로 듣는 오류를 범하는 예가 허다하다.

다음에 實質的으로 速記士가 직접 범하는 오류를 속기문자와 그 범하는 오류를 예를 들어서 表記하고자 한다.

※例

① 精確한 Speaker의 말

Oh, well, she doesn't understand  
(중아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② 틀린대로의 발음

[→oh-wε(a)]'i dāzn(t)jénda~stæŋ  
(d)ノ]

③ 속기사가 범하는 오류

oh, well she dozen on the stand?

上記의 例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Speaker가 이야기한 內容과는 전혀 다른 方向으로, 잘못 들어서 범하는 예가 허다한 것이다. 여러명의 Speaker가 서로 free talking을 할 때에는 주로 連音狀態에서 發音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上記의 例에서 오는 오류는 listener의 連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의 하나는 아마도 速記士의 자질의 문제가 아

닌가도 생각이 된다. 즉 영어에 대한 충분한 실력이 없는 속기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함은 흔한 일이다.

〔배〕Excrescent "T"

fense [fens]를 發音할 때에 無意識中에 Excrescent [t]가 挿入되어 [fents]로 發音되는 경우가 있다. [n]音에서 [s]音으로 移行하는 때는 發音器管에서 세가지 動作이 同時에 일어나야 한다.

即 ① 聲帶의 振動이 中止되어야 하고

② 軟口蓋(velum)가 올려져서 nasal passage가 막혀야 하고

③ 잇몸에 닿아 혀끝에 마찰음을 낼 수 있도록 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잇몸에 닿았던 혀끝이 떨어지기 전에 軟口蓋가 잠깐이라도 더 일찍 올려져서 nasal passage를 막아버린다면 잇몸뒤에는 壓力이 增大해져서 혀끝이 잇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瞬間 意圖치않은 [t]音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epenthesis 現象도 때로는 listening comprehension에 큰 障礙를 준다.

※例

dance sins once month  
chance figs

따라서 美國人中에는 다음의 짝진 말들을 同音異義語로(Homonym) 보고 똑같이 發音하는 사람이 많다.

※例

{ sense	{ dense	{ prince
{ cents	{ dents	{ prints
{ false	{ once	{ chance
{ faults	{ wants	{ chants

excrescents(剩音) T가 挿入됨으로 해서 차질 잘못하여 同音異義語로 發音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이 되기도 한다.

實質的인 면에서 例를 들어서 살펴보기

로 한다.

※① 정확한 speaker의 말  
once in a while, yes  
(네, 가끔 하고(가고) 있습니다.)

※② 들린대로의 말  
[→wants inə hwail jes↓]

③ 速記文字

④ 速記士가 범하는 오류  
wants inner while, yes.

上記 例文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wants  
와 once를 同音으로 들어서 범하는 오류  
또한 多數있을 것이다. 따라서 筆者가 強  
調하고 싶은 것은 勿論 連音의 지식부족  
도 부족이려니와 英語實力의 面도 우리가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함에 있어  
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함에 있어서 큰 支障을 주는 것中的 하나  
가 [t]와 [d]이다. excrement [t]와 [d]  
의 경우외에는 理解에 큰 支障을 주지는  
않는다. Excrement [t]와 [d]의 경우에  
도 situational context가 賦與되면 困難  
은 많이 解消될 것이다. 이 epenthesis의  
現象은 조짐성 있는 말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주 일어  
나는 모양이다.

Bronstein은 이 現象의 acceptabilize  
에 關하여 Heffer의 말을 引用하면서 다  
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An Unconsciously inserted [t] and  
[d] sound is made by many speakers  
in such words as "once" "fance",  
"sense", and "fance", "hans", "sins"  
".....are pronounced more often than  
not as homonyms of "dents, mint,  
prints".

例 侵入子音→正規發音

처음에는 侵入子音이던 것이 지금은 正  
規發音으로 綴字에 固定된 <p.b.d>의 例  
를 들어보면 下記와 같다.

※例

empty bramble glimpse  
slumber chamber number

꿈을 分明히 한다는 뜻에서 yep(=yes)  
nope (=no)와 같이 말끝에 [p]음을 添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俗된 말투이  
다.

2. 脫落變異

例 Syllabic [n]

많은 數의 單語에서 syllabic Conson-  
ants [l], [n], [m]이 나타나기도 하고  
nonsyllabic consonant가 나타나기도 한  
다. syllabic 가운데서도 [n]이 들어간  
單語의 理解가 아마 제일 어려울것이다.  
大部分의 學生은 non-native speaker 先  
생에게서 "button"과 같은 單語의 發音을  
여지껏 잘못 들어 왔다. syllabic [n]이  
들어간 單語의 例를 들어 보면 下記와 같  
다.

※例

button certain mountain  
hidden kitten cotton

hot and cold와 같은 phrase도 있다.  
더구나 Kenyon 및 Knott에依하면 co-  
tton, hidden 같은 單語는 發音함에 있어  
혀 신경을 써야 한다.

But in many words, while it is  
phonetically possible to pronounce  
either form[form with a syllabic  
consonant], one of the forms is  
decidedly prealent and the other  
either rare on un-English.

#### (4) medial [t]

##### ① [t→r]

有聲音사이, 普通母音 사이에 오되, 強音節의 첫머리에는 오지 않는 medial [t] Francis에 依하면 이 位置의 [t]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음으로 소리날 수 있다.

- (1) 一種의 flap
- (2) 多少 lax 한 (t)
- (3) 약간의 有聲音을 띠운(t)
- (4) 진짜[d]

그러나 이 4가지 음을 모두 Colloquial speech에서 나오는 發音의 範圍內에 넣어서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 않다.

Bronstein은 [t] colloquial educated speech [d]는 less-educated speech에서 發見되는 것이라고 區分하면서 兩者는 모두 Vicing Assimilation의 結果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Francis는 [r]을 'levels of usage와는 無關한 dialectal difference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나 colloquialism과 全然無關한 發音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如何든 이러한 medial[t]의 一部發音이 알아 듣는데 支障을 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上記 列擧한 4가지 음中 特히 [r]과 [d]가 問題이다. 그러나 이 두 음도 water, butter 처럼 자주 쓰이는 單語에 나오는 경우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

所謂 美式發音이라 해서 많이 들어왔기에 말이다. 問題는 特히 [r]가 자주 쓰이지 않는 單語에 나타날 때까지 일어난다 rotary나 battery에서 t를 r로 發音할 때는 알아 듣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예는 많이 있다.

例

bottom pattern utterance otter

#### cutter chater

위에서 單語의 [r]음 대신에 [t]음이 들어간 發音도 어느정도 問題가 될 수는 있으나 [r]음으로 나는 發音만치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 medial [t]의 發音가운데서 問題의 음은 [r]음과 [t]음외에도 [d]음이 있다.

이 位置에서 [d]음은 前述한 바와 같이 Bronstein이 less-educated speech라고 烙印을 찍고 있는 發音이다.

그러나 問題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d]음은 latter와 ladder와 같은 單語의 區別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Francis에 依하면 大部分의 美國人은 兩者를 區別한다는 것이다.

Hill이 말하기를 自身の Speech에서는 latter와 ladder가 區別이 되기는 되되 단 한가지 面, 即 時間의 길이 面에서 差異가 나는 發音들을 그네들과의 生活과 같이 해볼 機會가 적은 學生들에게는 그 listening comprehension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We will close the subject by returning to the <t> which in my idiolect occurs in water.

In my speech this contrasts with <d>—"later". and "ladder" are not homonyms—but only in one quality, time.

<次號 계속>



## 第 7 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

아침부터 간단히 뛰리는 빗발이 大自然에 생기와 청량감을 더해주는 가운데 을 태능선수촌의 넓은 운동장에서 速記人들의 연례행사인 체육대회가 協會創立 10주년을 맞아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協會 金龍泰會長은 鄭源道副會長이 代讀한 大會長人事를 통해 「오늘은 大韓速記協會가 창립된지 어언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체육대회 행사의 날이다. 江山도 변한다는 10년동안 우리 大韓速記協會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10년동안이 草創期の 발판을 다지는 성장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다져진 바탕위에서 여력분들의 技倆을 힘껏 발휘할 수 있는 活動期를 맞이하는 전환기이기도 한 때이다.

이제 더욱 튼튼하고 밝은 大韓速記協會의 내일을 약속하기 위하여 會員 여러분들이 각분야에서 더 많이 노력하고 눈부신 활약을 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굳건한 國力을 바탕으로 한 國家安保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바 各界各層의 모든 社會의 구성인들이 각자 맡은 부문에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國力培養에 이바지함으로써 모든 시련을 극복하여야 할 시기이다」는 要旨의 인삿말이 있었다.

또한 協會 吉基祥顧問은 「울창한 新綠아래서 신체내부의 公害를 씻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祝辭가 있었고 이어서 金鎭基前任副會長에 감사패수여가 있었다. 다음에 이 大會經遇를 여러 會員에게 알림으로서 다음해도 즐겁고 內實있는 大會가 될것을 기약해 본다.

### ☆ 大會經遇 ☆

1. 日 時 : 1977년 5월 1일(日)
2. 場 所 : 태능선수촌
3. 參席會員 : 168명
4. 競技種目 : 蹴球 및 其他경기
5. 各팀 紹介

독수리팀 : 國會速記課 編輯擔當會員  
 황 소 팀 : 國會速記課 第1,2擔當會員  
 청 룡 팀 : 國會速記課 第3,4擔當會員  
 백 호 팀 : 國會速記課 第5,6擔當會員  
 사 자 팀 : 外部會員  
 꼬끼리팀 : 法院會員  
 백 마 팀 : 來賓

### 6. 對戰結果 :

- 綜合優勝 : 청룡팀 準優勝 : 백마팀  
3位 : 꼬끼리팀
- 個人賞部門  
최우수선수상 ~ 청룡 成千永主將  
최다득점상 ~ 내빈 朴柱一主將  
표기상 ~ 法院 김용제氏



인기상~盧熙南會員

☆ 參觀記 ☆

○ 이 날 대회장 풍경은 蹴球에선 1,2 對陣과 어린이경기는 그해도 비가 맞은 가운데 진행되어 다행스러웠으나 예선 3대진과 準決 1대진 백호對 내빈경기는 점차 세차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흙탕물튀기는 水中熱戰을 強行 勝負에 대한 집념과 速記人的 강한 關志를 실감케 했다.

○ 子女競技에서 아파가 자녀업고 달리는 아파가 아들·딸을 업고 달려가는 애뜻한 父情을 보였고 1~3學年의 과자따먹기경기에서는 거짓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결코 과자를 손으로 따먹지 않고 꼭 입으로 따먹을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는 사람마다 웃음과 호뭇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 오후에는 실내체육관으로 일제히 자

리를 옮겨 夫婦 2인3자, 來賣 푸대입고 뛰기, 女會員 동선터드리기로 場內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으며, 準決 2대진인 청룡對코끼리는 「파이팅」 외치는 소리도 요란하게 배구경기로 續行되었다. 이경기에서 청룡이 2:1로 이기고 이어서 체육관이 떠나갈듯한 응원의 함성속에서 청룡對 내빈의 友情과 패기에 찬 決勝戰이 벌어졌는데 청룡은 選手補強과 내빈팀의 연이은 作戰「타임」(?)에 힘입어 優勝의 영광을 차지했다.

○ 특히 이날 會員 168명 來賣 58명 子女 95명등 321명이 大舉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李東一 進行委員長의 능률적인 진행으로 운동장과 體育館을 누비며 즐기치게 내리는 빗속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웃음과 妙技가 파도치는 가운데 行事를 마쳤음은 特記할 일이다. <良>



(입장식 광경)



# 韓非 著 韓非子

金 永 善

中國 古代의 秦나라 始皇帝라 하면 中國을 統一하고 郡縣制를 採擇하여 中央集權制를 確立했고 萬里長城을 쌓고 등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그의 政策의 立案과 施行이 韓非가 說破한 法術의 의합은 벌 알려져 있다. 始皇帝가 원하던 것은 富國強兵이었고 그 方法을 가장 正確하게 提示해 준것이 韓非의 著書 韓非子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韓非子의 一讀을 勸하는 의미에서 그의 思想의 轉輪을 간단히 紹介하고자 한다.

二柄篇에서는 明君은 두 개의 자루만으로 臣下를 統率한다. 두 개의 자루만 刑과 德이다. 신하된 사람은 누구나 罰을 무서워하고 상을 기뻐한다. 임금은 이 두 개의 자루만 쥐고 있으면 신하들을 그의 생각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奸臣들은 이 두 개의 자루를 휘두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한다. 그들은 임금을 앞세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제 스스로 罰주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제 스스로 상을 주려 든다. 齊나라의 田常은 그 임금 簡公의 허락아래 위로는 群臣의 戒를 勸에서부터 아래로는 백성의 代여쪽에 이르기까지 모두 進행했었다. 이것은 임금이 實이라는 자루를 스스로 포기한 채 신하에게 스스로 쓰도록 한 實例인데 이 때문에 簡公은 田常에게 殺害당했다. 또 宋나라 子罕은 임금에게 「상을 주면 백성은 기뻐합니

다. 상을 주는일은 임금께서 직접하십시오. 그러나 벌이라는 것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될 뿐이니 이것만은 제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벌이라는 자루를 신하에게 쓰도록 한 結果는 王位를 奪내는 臣下의 위협이었다. 하물며 상벌을 다 신하에게 빼앗긴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는 희망할 수 밖에 없다는 요지이다. 韓非는 나라의 秩序는 法的 正確한 執行을 通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現實에서도 權限과 責任이 같이 수반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責任없는 權限, 權限없는 責任이 무슨 所任을 하겠는가 여기의 임금은 치금의 社長도 되고 반장도 될 수 있는 것이다.

說林은 上篇 下篇으로 나누어 날카로운 文章으로 明諷을 남기고 있다. 그 中에 하나, 子圍가 商나라 대신에게 孔子를 紹介했다. 孔子가 돌아간뒤 子圍는 大臣에게 孔子를 만난 印象을 물었다. 그러자 大臣은 「孔子를 만나고 나서 당신을 보니 당신이 마치 벼룩이나 이치런 보이는 구로 내 꼴 孔子를 임금께 소개할 생각이요」 子圍는 孔子의 重用이 겁이 나서 「임금께서 孔子를 만나보시면 이제는 당신이 벼룩이나 이치런 보이게 될 것이요」 했더니 대신은 임금께 孔子를 紹介하지 않았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다. 뱀장어는 뱀갈고 누에는 벌레갈다. 누구나 뱀을 보면 놀라

고 별케를 보면 징그러워 하지만 고기잡이들은 손으로 뱀장어를 만지고 여자들은 손으로 누에를 만진다. 결국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용맹스러운 勇士가 된다 또 하나, 伯樂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千里馬 감정법을 가르쳐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짐말의 감정법을 가르쳐 주었다. 千里馬는 어쩌다 하나 감정하게 되니 收入이 적으나 짐말은 매일 팔리니 收入이 많았다. 즉 명색은 천해도 크게 쓰인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길은 사람의 深層構造를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 얘기가 실려있고 總 55篇이 收錄돼 있다. 그러나 韓非의 論旨는明快하기는 하되 그 뒤 儒家에서 排斥을 했다. 그것은 사람을 心服시키거나 教化시키는 것이 못된다고 본 것 같다. 왜냐하면 王과 臣下, 男便과 아내의 利害가 다르고 그 다른 利害關係가 힘의 均衡 지극

表現으로 힘의 牽制均衡위에 安定이 이루어지고 發展과 富國強兵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았던 것같은데 그것은 法的 힘만이 완되면 전번 「뉴욕」의 정전사고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진시황은 이 法術로 中央集權의 統一政府를 樹立하지만 技術書以外的 모든 冊을 불태우고 知識人을 잡아 죽여 中國을 暗黑으로 만든다. 그때는 韓非가 죽은 뒤지만 萬若 살아 있었다면 自己冊을 改筆하거나 追加篇을 썼을 것이다. 이 思想은 너무나 人間을 기계시켰기 때문에 이 冊만 보지 말고 論語와 孟子와 比較해 보면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또한 行政學에 있어서 時間研究 動作研究를 기반으로 하는 科學的 管理法이라 稱하는 데 일러시스텐」과 人間關係의 研究를 重要視하는 요즈음의 行政學과 比較해도 “人間”을 조금은 더 알게 될 것 같다.

(國會法司委 法制宮)

### 會費納付案内

協會에서는 會員諸位의 회비납부에 편의를 圖謀하기 위하여 우편대체구과 (532689)를 마련했  
아온 바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비는 月 200  
원(年 2400원)입니다.

協會運營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참신한 의견  
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 善隣人情

李 康 允 (회원·화폐수집가)

출근길 버스 안에만도 우리가 당면한 슬한 과제들이 가득하다.

질식 직전에 이른 듯한 외침으로 "이제 그만좀 태우라"느니, "짐작도 이보단 낫겠다"느니 하고 아우성 쳐 봤자 소용이 없다.

어느 뎨 안내양조차 받을 못 딜고 공중에 뜨다싶이 되었다간 문이 열리자마자 길바닥에 나동그라지지만 그래도 타야겠다는 사람의 물결을 막을 재간이야 없지 않는가.

거기다 준비 없이 올라탄 멀정한 신사(?) 한 사람이 땃땃한 1,000원짜리 지폐를 차비 35원으로 내릴 뎨 이내 안내양 눈살이 찌푸려진다. 솟게 고액권을 받지 않는 뎨이 낫겠다는 눈치다.

운전 기사 묘기로 S자 운행이 두어 번 이루어지면 만원 승객은 이미 기진맥진, 중심을 잃고 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승객과 승무원간의 얘기들로 그저 겪지 않으면 심심할만큼(?) 만성이 꽤 있어 꺾이나 잘 참아낸다.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운수 회사와 행정 당국에서 서어비스 개선, 차내환경 개선, 승차권 문제, 노선 및 정거장 조정 등 그 대책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어떻게든 차츰 개선되어 교통

지욕이 해소될 날이 올것을 기대해 볼지도 하다.

그런데 비좁은 그야말로 고사리손의 책가방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할 버스 안의 슬한 과제중에서 선린 의식, 경노 의식이 날로 흐려지고 노약자나 병약자 보호란 구호에 그치는 일면이 승객과 승무원내지 운수 회사와의 과제나, 혹은 차내 소매치기 문제를 비롯한 승객 상호간의 시비들 보다는 몇 십 배 더 우리를 서클쓰게함을 어찌 치유해야 할 것인지 실로 문젯거리가 아닐 수 없다.

만원승객 틈에 몇 정거장만 끼어 가 보면 아무리 무뎨 사람이라도 태연할 수만은 없다. 밟혀서 밟동이나 밟가락이 저리든지, 옷자락이 뜯어지지 않으면, 깔끔히 빗은 머리칼이 흐트러지든지, 단정히 매고 나온 넥타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이내 짜증이 날기다. 그러다가, 앞을 자리가 하나라도 나게 되면 누가 옆에 있던 아랑곳 없이 번개처럼 몸을 던진다. 쫓쫓하고 억센 충일수록 재빨리 그 빈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마련이다. 그야말로 노약자나 어린이 우선권념 같은 건 아예 저버린 지 오래인 듯하다. 말하자면 "천신만고 끝에 차지한 우선권을 누가 빼앗길쏘냐" 하는 식의 처신이다. 도대체 어

째다 이끝이 되었을까 싶다. 거창하게 동방예의지국이니, 도의 정신이니, 경노 사상같은 애질량 아예 허튼 소리라고 힐란 받기 전에 접어치워야 할 판이다.

교단과 강단에서 도의교육을 복이 터져라고 외쳐 본들, 그 강의를 듣고 난 학생들이 답안지 작성은 맞게 하여 지상 인격 평가는 완성에 이르지 몰라도, 만원버스 속의 생리를 혼흔히 일신하는 기풍이 되 살아날 가망은 요원할 뿐이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친손자녀의 것이는라도 다뤄 주듯 무거운 책가방을 물어 주 광경은 간혹 볼 수 있어도, 지팡이 마저 가누기 힘든 노인에게 선뜻 자리를 내 드리는 인사성 바른 젊은 층을 기대하는 건 바보스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선

다.

근간 우리 사회는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그 생활 향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부의 축적이 어느만큼 이룩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부강한 국가, 부유한 사회가 이룩되어 갈수록 나보다 나약한 이를 돕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 주는 인정이 섰츠고, 선린 의식이 풍미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 하여 모처럼 거둔 풍성한 열매를 아귀다 볼 없이 고루, 그리고 짙이 향유해야 하지 않을까?

출근길 만원버스안의 인정에서부터라도 어서 훈기와 온정이 흘러 한결 명랑해지길 빈다.

### 사랑에 관한 名言

- 사랑은 아름다운 꿈이다.  
-W. 샤프 <슬픈마음>
- 사랑이란 완전히 알려지고 모조리 용서받으려는 마음의 不滅의 갈망에 불과하다.  
-H. 반다이크 <사랑>
- 사랑은 흥여과 같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거쳐가야 한다.  
-J.K. 제롬 <게으른친구의 게으른생각>
- 사랑은 가장 달콤한 기쁨이요, 가장 처절한 슬픔이다  
-P.J. 베일리 <祝祭>
- 사랑은 人生의 소금이다.  
-J. 셰펠드 <사랑의 시>
- 사랑이 얇은 곳에서는, 절절이 두껍다.  
-J. 하우얼 <격언집>
- 사랑이 괴 어쩔거나 통글거나 모나거나 기머나 짜르거나 밟고 남아, 자일려나 하그리 긴 줄은 모르되 끝간메를 몰라라.  
-失名 <古今歌曲>



## 시집가는 남자

유 승 관

(포항계철 비서실)

### 태평로 의사 시집당

속기사가 출입하는 본회의장 입구를 찾지 못해서, 갑갑하게 올라가면 베타이를 잡아 다니면서 아래 위층을 뛰어 다니던 때가 얼마전의 일 같은데 어느덧 세월은 쉬임없이 흘러서 어언 4년 3개월이 지났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내 어깨 넓이 만큼 밖에 안되는 성북동 사철 도서실의 칸막이 속에서 삼각함수와 2차방정식의 X축과 Y축 사이에서 수많은 밤을 앓아내면서 안달하고 있었던 머뭇머리의 재수생이 어느날 갑자기 배달소년이 던져주는 인간신문의 4단광고에 일순간 사선이 머물게 되자, 그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어둠침침한 지하실 속에 파묻혀 피상한 그림 그리기(?)에 1년아 넘는 시간과 정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는 네모 반듯한 임용장 한장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거센 통랑 일령이는 거대한 세파에 투신하게 되었으니 그때 당시의 이 어설플른 시골청년의 모습이 73년 6월 1일의 내 모습이 아니었나 하고 나혼자 가만히 미소지어 보는 것이다.

### 그날 이후

새로운 생활환경 속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부족하고 어리석기만 하였던 나에게 여러 상사님들과 선배님들께서는

훈훈한 인정속에서 원만한 인간관계의 본을 보여 주셨으며, 때로는 투덜거리며 손에 땀을 쥐고 열중하던 속기업무가 내게 있어 폭넓은 전문을 넓혀 주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형님이 배어준 베타이물 풀어질 세라 조심스럽게 목에서 빼고 끼우던 당시의 어설플른 사회 초년생이 이제는 단숨에 휘파람의 여유 속에서 다양하고도 비효적·양호한 모양으로 척척 감아 돌리는 나의 베타이 때는 칠력 만큼이나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는 발전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때, 한 여성이 결혼하게 되므로써 정들었던 부모 곁을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고 새로운 집에서 처음에는 접 시도 깨고 연탄불도 꺼뜨리고 꾸중도 듣고 해가면서 경황없는 신희생활을 하다가 차츰 시간이 흘러서 가정생활에 익숙해지고 살림에 정이 들기 시작하면 주위사람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그야말로 안정되고 즐거운 가정생활로 접어드는 때가 오리라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 시기가 결혼 후 삼사년이 지날 무렵이 아닐까 하고 어림잡작을 해본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 왔을

때에는 그야말로 세상물정도 모르고 사회 생활의 예의범절도 아주 미흡한 마치 경망스러운 새대마냥 주위의 여러 선배님들께나 동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수와 결례의 행동을 연발했을까 하고 돌이켜 자성해 볼 때 지금도 무안한 표정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언제인가 새로 지은 의사당에 와서 본회의장 속기업무에 배비하여 속기사 전용 문 출입예행연습을 하던 중 엉뚱하게도 오색빛 찬란한 「로렌다·홀」을 지나 의원석을 가로 지르며 발걸음도 가벼웁게(?) 본회의장을 타박타박 들어오다가 꼭박한 반달형의 돌벽을 발견하고서야 아차! 여기는 대평로가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얼마후에 내게 닥쳐올 상사님의 준엄한 훈시책이 임안된 후였으니,

참으로 나 자신의 경솔하였던 행동을 지금도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깊은 사려와 따뜻한 관심이 없는 기성세대의 비판적인 눈초리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나라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도 나 자신만은 지난 수년 동안 속기과의 여러 선배님들의 인성어린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20대 전반을 보낼 수 있었으니 이는 내게 있어서는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을 보람있는 직장생활이었다고 어디에 가서든 힘주어 말할 수 있겠다.

-----

의원동산의 「마로니에」 잎이 한잎 두잎  
소슬바람에 흔날리고 은행나무의 노오란

빛깔이 결실의 계절을 재촉하는 이 가을.

지난 4년간의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인격을 거울삼아 이제 막 부모의 곁을 떠나 미지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마음 설레이며 떠나는 新婦의 자세로서 어느곳에 가서든지 내가 자라온 가문을 빛내고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 훌륭한 速記인이 되어 보리라 하고 두 입술 요곡 깨물면서 마약 떠나는 자창가로 한숨을 내뿜는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미한 인간을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신 여러 上司님 그리고 선배님들과 후배님 기타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이제 몸은 비록 수백리 먼곳 낯선 땅에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출렁이는 迎日濤의 푸른파도처럼 마음만은 항상 깊고 그윽하게 그리고 푸르게 굽이치면서 푸른잔디 꿈게 깔린 녹색의 장원 여의도 벌판에 항상 날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류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조물주 하나님께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속기과를 떠나면서—



## “꽃”과 斷想



金 銀 淑

〔꽃〕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짙기롭다. 香氣가 滿開한다. 나는 거기서 墓穴을 판다. 墓穴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墓穴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늙는다. 또 꽃이 짙기롭다. 꽃은 보이지 않는다. 香氣가 滿開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再次 거기 墓穴을 판다. 墓穴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墓穴로 나는 꽃을 잠깐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나는 정말 늙는다. 아 꽃이 또 香氣롭다. 보이지도 않는 꽃이——보이지도 않는 꽃이 (李 箱)



어두운 靑春의 몸부림 속에서 운명 앞에 홀로서 있을 수 밖에 없었던 李箱의 詩를 읽는다.

깊은 꽃 香氣, 그것은 人生의 유혹이다. 밝고 따스한 삶의 화열이다. 곧 죽을 것이라는 豫感에 떠는 李箱으로서 그의 官能과 理性을 적셔 오는 풍부한 꽃의 香氣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

人生의 香氣가 풍부하게 느껴오면 울수록 그에게 남는 것은 보다 짙은 絶望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일제감치 묘혈을 파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감을 떨쳐 버리기도 하듯 스스로 묘혈을 파고 차라리 安住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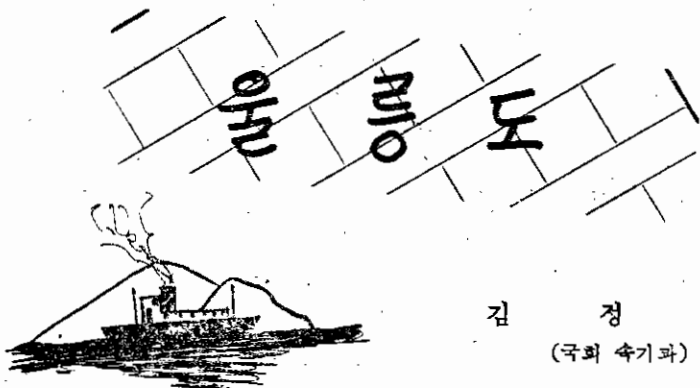
그러나 그의 天才는 그의 良心은 자신의 나약함을 적시하고 또한 거부한다. 그가 거부하려 할 때 보다 짙은 꽃 香氣는 밀려온다.

그는 다시 깊은 스스로의 묘혈을 판다. 그의 가장 깊은 의식의 절망 속에서도 그를 향한 삶의 懷柔는 끈질기지만 하다.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삶, 그것도 영원한 삶에 대한 눈 감을 수 없는 認識의 아픔 속에서 그는 正直하게 存在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의 精神的 兄弟에게 슬픈 符號를 남기면서, 그는 자기 運命을 사랑하고 또 온전히 運命 속에 沒入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정 민  
(국회 속기과)

7月 27日

까-만 철도로 이어진 서울역 플랫폼에서 날쎄 제비 두마리만이 깃을 치며 전송해 주던 날이 었그제.

오늘은 포항發 울릉도行 배 위에 몸을 실고 반나절을 달려왔다. 갑판 위에서 본 바다와 하늘의 조화는 만물을 창조하신분의 위대함의 극치였다. 그 선상에는 배가 닿을만한 티끌 한점 보이지 않아 저쪽 끝에 가면 낭떨어지가 있어 이래로 자꾸 나가다가는 그만 떨어져 버릴 것만같았다.

난생첫 타보는 뱃길이라 이렇게 어중잡은 겁도 났던 터이었으나 거칠게 거품을 토해내며 바다를 가르느 배의 위력에 두려웠던 마음은 어느 듯 바다속으로 침잠해 버렸다. 그리고나서 어언 5시간이 지난뒤 바야흐로 눈 앞에 펼쳐진 한복의 신천지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아마 처음 맞선을 본대도 이렇게 뛰지는 았을 것이다. 지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서부터 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섬' 자체가 지나고 있는 길은 신비로움이 그 거리마저 무색할 지경이아니

었나 싶다.

얽게 깔려 있는 안개 속에서 섬으로 근접해 감에 따라 천천히 베일을 벗는 섬의 웅장한 모습은 마치 동해안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민중적스러웠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할 때 하나씩 제껴지는 섬끝자기마다가 자연 그대로의 병풍을 펼치고 있었고 두근대는 내 맘과는 달리 의연한 자세로 잔잔한 미소까지 머금으며 맞아주고 있었다.

생각과는 달리 부두에 닿으면서 바람에 일목져 풍겨오는 섬 냄새가 어쩐지 어물전에 와 닿는 기분이었으나 툭툭한 소금기어린 바다냄새에 곧 친근해 질 수 있었다. "민박할까요?" 되풀이되는 섬아주머니들의 환영사를 떠받으며 즐기차게 빠져나온 곳은 포항 친구의 먼 고모님댁인 동해호 사무실이었다. 고모님께서는 인자하시면서도 또렷한 눈과 경우밖은 말쑥으로 인해 섬사람같지 않은 인상을 길게 풍기는 분이였다. 늦은 저녁에는 그분의 아드님께서 잠을 내어 일정 짜는데 도움을 주셨고 흥합과 모양은 똑같으나 열배쯤 더

큰 열합을 가져오셔서 구수한 울릉도음식으로 첫번째 선을 보인 셈이었다.

7월 28일

오늘 일정은 섬일주를 하고 시간이 되면 폭포까지 가는 것이다. 아침 6시 30분 기상. 어제의 예정대로 9시쯤 부두에 내려가 섬일주한다는 배에 올라타고 반시간이상이나 기다렸으나 떠날 생각을 않아 어인 일인지 알아본 측은 한 배에 적어도 20명을 타야만 수적이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우리 일행은 배주인과 함께 하여 손님 끄는 데 전념을 다했다. “도일주 하실라니까 우리 배같이 타고 하십시오” 하나둘씩 모여든 것이 어느새 20여명이 훨씬 넘게 되었다. 하지만 해는 벌써 중천에서 위듯은 우리 배를 보며 웃고 있었다. 출발을 의치는 소리와 함께 통통거리며 떠나는 배속에 몸은 앉아 있었지만 심을 두루 두루 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 대한 기쁜 마음은 갈매기와 함께 날고 있었다.

맨 처음 나타난 마을인 저동을 가리키며 젊은 안내원은 설명을 시작했다. 그곳은 가장 먼저 개발됐고 또 가장 큰 동네로 울릉도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데 전학을 목표로 하는 보통반과 여학생 중심의 가정반 배를 타기 위한 어업반 이렇게 간단하게 나뉘어 있다고 한다. 저동 바로 앞에 표측하니 솟은 촛대바위를 지나 한편으로 푸른 바다를 뚫어 놓고 가는 동안 한 가족이나 되듯 얼굴을 맞대고 있는 섬들이 보였다. 바로 보이는 것이 바위만으로 된 북지섬 그 옆엔 갈매기섬 조금 더 가서는 잘 부풀 뺨처럼 둥그스럼히 앉아 있는 섬이 竹島 지기탈로는 뱃섬이라 한다. 그곳의 투

장은 대나무가 많으며 수박이나 감자류밖에 생산되지 않는 울릉도·유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

안내원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독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었는데 도동항의 살구나무라는 바위에서 나침반을 110에 놓고 45 속력의 배로 6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하여, 우리 일행의 마음에 충동질을 하였으나 모두 각자의 생각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조금 후 파도의 작용때문인지 바다와 닿은 부분이 여기 저기 쪼려 있는 관음도에 다다르면서 섬에서도 이튿날 관음굴로 들어가고 있었다. 따가웠던 태양을 가려 주면서 차츰 들어갈 때 온 몸에선 금방 열기가 식어가고 천장에는 집채만한 돌들이 서로 이마를 맞댄 양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 사이 사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머리에 와 닿을 뻔 돌들이 오싹하기까지 하였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방을 하나에 5년을 더 산다는 말을 듣고 흐뭇해 하기도 했다.

다시 뱃머리를 돌려 바다로 나오자 하나로 보이던 커다란 바위가 보였는데 배가 가까와지면서 서서히 갈라져 좁은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삼신암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중에 머리를 들어 보았더니 서울의 고층건물만큼이나 가파른 절벽이었고 돌로만 되어 있는 암벽 정상에는 죽은 듯한 몇그루의 나무와 풀포기가 아주 약삭스럽게 자리잡고 있었다. 어떤 마력을 지닌듯한 메마른 풀과 외로움까지 비쳐지는 나무 그루터기에서 눈을 떼기도 전에 어느새 배는 빠져 나오고 있었다.

활랑거리며 배에 와 부서지는 파도 이

세상의 잉크를 모두 쏟아부은듯한 바닷물 낚설은 듯 익어버린 섬 그 위에 한없이 날개치는 햇살 위에서 항상 잠재해 있던 손뚱만뜰한 꿈에의 실현을 맛보게 되었고 그 속을 헤매던 나는 안내원의 열띤 소리에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다. 애항심과 바다의 신비로 가득한 눈매의 안내원은 우리 일행이 유별나게 귀를 기울이자 입에 침을 뱉어 가면서 퐁퐁배 모타소리보다 더 커야하는 목청을 울리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울릉도는 여름도 좋지만 흰눈이 내릴즈음의 겨울은 더 좋단다. 그때는 방 안에서 책이나 보며 옥수수물 튀겨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섬사람의 소박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면서 다음에 가리킨 것은 날카로운 송곳바위의 조그마한 열쇠구멍이었다.

형님과 아우곰 두마리가 바다를 헤엄쳐 오다가 형님은 섬으로 올라가자고 하구 아우곰은 바다가 더 좋다는 의견충돌이 생기자 열쇠구멍에 맞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아우곰이 고집을 부려 그만 바다에서 바위가 되어 버렸다는 꿈같은 두바위가 큰 것은 섬쪽에 작은 것은 바다쪽으로 붙어 있었다. 역시 꿈은 꿈이 아닌가!

배의 속력을 줄이면서 닻을 내렸던 천부항에서 안내원을 따라 150M쯤 우측언덕으로 올라가니 자연에어른이라 칭하는 풍혈에 닿았다. 지층변동에 의한 공간형성으로 지하수통과시 공기냉각유출에 의해 여름에는 12~13°C 겨울에는 8°C의 온도를 유지하여 한 여름이면 그 속에 막걸리, 맥주, 수박 등을 채웠다가 오가는 손님들에게 팔아 더위를 떨어 주는 곳이었다. 높이가 1.7m 넓이 3m<sup>2</sup> 냉각면적이 2m<sup>2</sup> 거기에 대한 수용인원은 12명정도로

써 우리 일행도 많은 사람을 뚫고 들어가 잠깐 쪼그리고 앉아 보았더니 어느새 뚫에는 한기가 배었고 땀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게다가 병에 담아 채워놓았던 냉각걸리 한 병을 사서 한모금씩 마셨을 때 입에 사르르 감기는 것이 정말 꿀맛이었다.

도로 내려와 배를 타고 5분도 못가서 닻을 내린 곳이 추산수력발전소가 있고 울릉도 해변가에서는 보기드문 민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섬일주라하여 쉬는 것도 없이 바다위에서만 단는 것인줄 알았는데 배주인이 특별히 점심해 먹을 곳을 물 좋은 곳에 데어 주겠다고 그 무거운 닻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고도 감수해 주던 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린다. 발을 더딜 수 없을 정도로 딱가운 돌위에서 일부는 헤엄을 치고 일부는 뱀을 지었다. 옆에서 팔았던 메발이라는 빨강고 조그마한 고기를 두마리 사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으니 그것이 바로 울릉도 음식 두번째 선이었다.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잘 끓여낸 메발이찌개맛은 어느 생선에서도 맛볼 수 없는 고소함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됐다는 뱃사람의 신호때문에 들어가지만 하면 내 세상이 될 것만 같았던 바닷물에 한 번 못들어가고 다시 집을 꾸리게 되어 지금까지도 무명항 바다 밑이 그대로 눈 앞에 어른거린다.

그 후에 배가 정착한 곳이 태하동으로 이 지점이 섬 일주의 딱 절반이라 한다. 여기에는 숲에 가려서 전체는 잘 안 보이는 하얀 등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지키는 것으로 그 크기가 둘째가는 것이라 하였다. 그 속에서 덕수염이 텃수룩한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옛날 전설

을 얘기하며 우리가 탄 배를 보는 것같이 한결 정스러웠다.

15분쯤 마을로 들어 가니까 몇명 남짓한 공간에 내가 여태껏 보아오던 중 가장 작아 보이는 서낭당이 나왔다. 옛날 무인도로 되어 있던 즈음 정박했던 배 한 척이 떠나오기 전날 밤 도신령이 나타나 남녀 한명씩을 두고 가라는 해피한 일이 있게 되었다. 언짢은 마음에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풍량이 일어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었다. 닳을 내린 후 남종과 여종에게 담뱃대를 두고 왔으니 가져오라고 시켜놓고 닳을 올리자 거짓말처럼 잔잔해져서 무사히 본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 결과는 두 남녀가 살아 있는 듯이 꼭 겨안고 죽어 있었는데 손을 대자마자 재로 화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때서 두 사람의 혼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 자리에 조그만 집을 짓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섬사람들이 배를 완공하거나 진수시킬 때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유서깊은 서낭당 전설이 깃들어 있었다. 배타려 오는 동안 두 남녀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갈매기의 주산지인 남영을 지나 사자 바위를 거쳐 근 6시간의 섬일주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으나 워낙 늦게 출발한 터라 폭포가는 것은 포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내원은 울릉도를 문자그대로 답답한 무덤같은 섬이라고 불리워진 얘기를 했지만 3無 5多라 하여 뱀 거지도독이 없고, 바람 미인 동백나무 돌 맑은 물이 많다하니 더 없이 살기좋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7月 29日

오늘 아침은 4시 30분에 기상하였다.

봉래폭포와 성인봉을 가기 위해 도동에서 저동으로 뺏긴 육로를 걷게 되었다. 며칠째 여로 속에서 잘 풀리지 않은 체력으로 는 아무래도 두 코스가 힘든 것같이 봉래 폭포를 우선 보고 내일 일찍 성인봉을 다녀와 포항行배를 타기로 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간이휴게실에 짐을 맡기고 그 곳에서 만난 아저씨의 안내로 흔히 알려지지 않은 봉래 제일폭포를 향하게 되었다. 인상이나 목소리의 억양까지도 우리 사무실에 종종 오시던 분과 너무 닮아 놓아 일론 친숙해질 수 있었다. 산을 타는 풀이나 벼루는 친절로 보아 울릉도 주민인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대구에서 오게 됐다는 동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 받으며 길따라 가다가 약속이나 한듯 모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접어든 길이 발하나 움작 할 정도의 폭을 가진 경사진 곳으로 발아래로는 땅끝도 안보이게끔 수풀이 울창하였고 중간중간 덩굴이 가로나 있어 걸리거나 지르곤 하는 정갈(?)속에 묻히게 되었으니 한눈 팔거나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정갈이라고 했지만 산짐승은 한마리도 없으며 뱀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발아래에서 기어다니거나 바위옆에 붙어 있는 벌레들 뿐이었으며 산새와 쓰르라미의 중창에 맞춰 춤추는 나비들뿐이었다. 게다가 그 지대는 나비의 원산지인양 가지 가지 모양에 가지가지 색깔과 무늬를 지닌 나비들이 풀잎마다 매달려 조종사노릇을 하니 풀잎의 무도회가 한창이었다.

30도를 넘어 바람한 점도 없는 이글거리는 태양아래 목과 얼굴에는 땀방울의 수정결구이물 드리우곤 하여 흡션 있어버렸으나 내나뉠대로의 쾌감을 맛볼 수 있

었다. 선택되어진 하나의 길만을 믿으며 몸속의 잔꺼거기를 모두 배출시키면서 풀 풀 뜯겨나오는 산냄새를 맡는 것은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이 아닐까?

어느덧 싸아한 한기를 느끼면서 이슬 방울같은 것이 머리에 쏟아지는 것을 보고 폭포 바로 앞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발자욱 더 가자 동그란 하늘이 파랗게 뜰리고 바로 그 틈에서 새어 나오는 듯 세차게 내리치는 폭포의 장판이 드러났다. 열키는 월등히 넘을듯한 엄청난 폭포수가 거치는 듯없이 직강하여 바위에 부딪쳐 그만터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안개가 자욱한 조그만 산물이 점점 끼여 있는 동양화 한폭이었다. 그곳엔 우리 일행의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5,6명이 앉을만한 조그만 공터가 있을 뿐이었고 살아있는 한쪽의 그림 속에 있으니 이에 지상 천국이 따로 없었다. 옆에는 냉면끓일 물을 올려놓고 기타 반주에 한 마음되어 노래를 부르니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심정을 그제서야 알만했던 것이다. 한참이나 있다가 코펠루경에 손을 살짝 얹어보니 웬걸 지금쯤은 펄펄 끓고 있어야 할 물이 싸늘하게 식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꼐사 바나를 흔들어 보더니만 연료를 다 써버린 걸 가지고 올라 왔다는 것이다. 달리던 고속버스가 빵꾸난 듯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는 저마다의 피성이 튀어나왔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자 다시금 배를 쥐며 웃을 수밖에.

7月 30日

울릉도의 마지막날인 오늘은 聖人峯行 성인봉에서 내려오는 사람마다 올라갈 것 없다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때도 울릉도에

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데 의의를 두고 출발을 했다.

해발 983m의 봉우리로 등산 옆에 길이 나 있어 가도가도 끝이 없었고 키좁되는 풀과 나무뿌리였다. 물도 귀한 터이라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힘들어 올라가면 또 그만큼 쉬어야 했고 올라갈수록 쉬는 빈도는 잦아지게 되었다. 표시판에 1330M라고 쓰여진 것을 보고 정상까지를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오늘 3시배에 달기가 힘들 것같이 못내 아쉬움을 남기고 배시간에 맞추자는 좋은 핑계로 우리 일행은 날을 듯이 하산길에 들어섰다. 저동을 거쳐 도동으로 나온 것이 거의 1시가 넘어섰을 무렵이었다.

도동고모넉백에 혼자 남아 있던 포항친구와 하루만에 상봉을 하니 더욱 우리의 추한 꼴이 대비가 되었다. 시간이 그리 많지도 않고 하여 일어서려는데 고모넉에서 상을 보아왔으니 한술 뜨고 가라는 것이었다. 오는 도중에 점심을 간단히 한지라 부득이 사양하였으나 사양지심도 한도가 있는 법, 들어가 먹는 시늉이라도 하자던 것이 나올 때 보니 하이얀 빈접시만 가득하니 남아 있었다. 감자를 갈아 그 녹말로 만든 비불기빛의 딱끈끈한 감자떡이며 고수한 고비나물무침에 시원한 열무김치 등이 그 메뉴였다. 마지막으로 베풀어진 울릉도 진미와 친절을 한껏 맛본 후 우리 일행은 포항행에 올라서면서 저나름대로의 아쉬움만을 안고 말이었다.

## 用語解説 (11)

### 研究委員會

#### ○도미노現象(domino)

最近 美上院外交委員會가 낸 報告書에서 「오일 쇼크」以後 非產油開發途上國들이 美國商業銀行들로부터 빌린 莫大한 債務을 履行하지 않을 경우 한 나라의 債務不履行이 다른 나라로 번지는 「도미노」現象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警告했는데 이 「도미노」理論은 美國의 戰略理論의 하나로서 어느 地域이 共產化되면 그 隣接地域도 차례로 共產化의 危險이 增大한다는 主張을 가리킨다. 例컨대 越南이 共產手中에 빠짐으로써 「타이」 「캄보디아」等 東南亞細亞의 國家들이 連鎖反應式으로 共產勢力에 占領 當하고 드디어는 美國의 將來도 危險해진다는 理論이다. 「도미노」는 18世紀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제임」으로 28개의 「파이」를 차례로 놓아 勝負를 거두게 되는데 이 「도미노게임」에서 이러한 呼稱이 由來되었고 이것을 「도미노」現象이라고도 한다.

#### ○民間借款

民間人을 擔當者로 하는 借款을 말한다 一般的으로 國際間的 資金貸借를 借款이라고 하는데 借款의 當事者가 누구인가에 따라 政府借款과 民間借款으로 나누어진다. 借款은 또 다른 側面에서 政治借款과 經濟借款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民間借款은 全部 經濟借款에 屬한다. 따라서 民間借款은 當事者 雙方이 모두 利潤을 追求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資金을 供給하는

側으로서는 海外投資가 되며 資金을 供給받는 側에서는 外資導入이 된다.

#### ○OBA 政策

「바이 아메리칸」政策의 略語로서 美國政府가 「달러」防衛對策의 一環으로서 美國商品을 優先的으로 購入하라는 政策이다. 이 政策은 美國의 國際收支가 해마다 巨額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들은 正하고 美國의 國內産業을 保護하기爲하여 美國政府가 마련한 것이다. 特히 美國援助를 받는 受援國으로 하여금 美國商品을 優先的으로 購入케 하며 그 輸送도 美國船舶을 優先的으로 使用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年 9月 15日 「닉슨」大統領은 物資輸出에서 이 政策을 撤廢할 것을 提案했었으며 中南美에 對해서는 이미 그 措施가 取해지고 있다.

#### ○用役輸出

駐韓 UN軍에게 勞務 「서비스」를 提供하거나 土木 建築工事を 都給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代價를 「달러」로 받으므로 輸出로 看做한다. 여기에서 얻은 「달러」는 一般用役弗과 特殊用役弗로 區分되는데 一般用役弗은 建築工事的 代價로 받는 價金等으로 外換銀行에 賣却해야 하며 特殊用役弗은 演藝 娛樂等을 提供하는데 對한 代價로 얻은 「달러」로 輸入計定에의 移替가 許容된다.

## ○소식란○



- 第7回 全國速記人體育大會가 5月 1日 泰陵選手村球場에서 개최되었음.
- 法制官(3乙) 轉職試驗 결과 '77年 6月 10日字로 金永善事務官은 法司委員會, 崔錫模事務官은 內務委員會, 全海成事務官은 保社委員會, 徐秉運事務官은 豫決委員會로 各 各 轉補 發令 받았음.
- 速記事務官昇進試驗 결과 77年 6月 10日字로 金允洙會員이 昇進되었으며 9月 1日字로 宋基喆, 崔滉洙, 金基英會員이 各 各 昇進되었음.
- 姜瑞弘會員은 77年 1月 5日字로, 李德九會員은 77年 7月 25日字로 各 各 國會圖書館總務課로 轉出하였음.
- 國會速記士養成所同門會가 第4回 定期總會兼 野遊會를 幸州山城에서 많은 會員들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어 즐거운 하루를 가졌으며 새 任員陣(會長: 朴順必, 副會長: 金銅洙, 金學順, 監事: 金京中, 金銀珠)이 選出되었음.
- 5月13日에 實施된 國會速記職公務員 採用試驗에서 6名이 合格되었음.  
李蓮姬, 金惠碩, 吳光雄, 金正德, 安順姬, 金載鶴
- 77年 2月 7日 第78次 協會理事會 決議에 의하여 速記界編輯委員會가 委員長 宋基喆 委員 金允洙, 梁源龍, 姜宗遠, 金銅洙, 幹事 河良培로 구성되어 第1次 編輯委員會는 7月 7日 소집하여 앞으로의 會誌方向과 第18號 速記界의 특집내용에 대해 論議하였음.
- 會員動靜
  - (1) 軍入隊  
李承哲會員(77. 2. 17) 윤희여會員(77. 3月) 강수현, 홍기표會員(77. 6月)이 入隊.
  - (2) 復 職  
軍에 服務中이던 柳承寬會員(77. 4. 14), 高錫光會員(77. 7. 12), 李承哲會員(77. 8. 23)이 除隊하여 速記課에 復職했음.
  - (3) 結 婚  
高隆繁會員(76. 10. 16), 河良培會員(77. 1. 29), 崔性周會員(77. 3. 12), 張淑卿會員(77. 4. 24), 盧熙南·車公順會員(77. 10. 8)
  - (4) 退 職  
國會速記課에 勤務하던 金東雲會員이 77. 9. 16 柳承寬會員이 77. 10. 2 各 各 依願 免職되었음니다.

## 第10回 定期總會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1. 日 時：1976年 12月 11日 午後 1時
2. 場 所：國會 146號 會議室
3. 出 席：在籍會員 148名中 95名 出席
4. 附議案件

- 〈1〉 會務報告
- 〈2〉 1976年度 決算承認 및 監査報告
- 〈3〉 1977年度 事業計劃案 및 豫算案의 承認件
- 〈4〉 定款改正의 件
- 〈5〉 任員改選

### 5. 會務報告

#### 1. 執行部署決定

總務財政部：高太仲， 宣傳部：金允洙， 事業部：黃寅河， 外國語部：盧英民， 研究  
委員長：金永春， 資格審查委員長：李康賢， 無任所：鄭明吉， 金亨坤

#### 2. 放學을 이용한 速記講習

시 기	기 간	장 소	강의 법식	수강 인원	수료 인원
겨 울	'76 1. 12~31	동방속기학원	동 방 「그레그」	국어 478명 영어 184명 계 662명	국어 340명 영어 130명 계 470명
여 름	'76 7. 26~8. 18	동방속기학원	동 방 「그레그」	국어 212명 영어 114명 계 326명	국어 144명 영어 44명 계 188명

#### 3. 전국 속기사 기능 검정

회수	일 자	장 소	응시 인원	합격 인원
10회 (봄)	76. 4. 25	국회속기사양성소	국어 각급 67명 영어 각급 13명 계 80명	국어 각급 16명 영어 각급 7명 계 23명



11회 (가을)	76.10.31	국회속기사양생소	국어 각급 89명 영어 각급 27명 계 116명	국어 각급 54명 영어 각급 4명 계 58명
-------------	----------	----------	----------------------------------	--------------------------------

4.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 속기 강습

기 간	대상단체 및 장소	인 원	강 사
76년 3월~8월	서울 시립부녀사업관	50명	김 영 춘
76년 3월~12월	서울 창 덕 여 고	70명	김 형 곤

5. 퇴직발간 : 17號 발간

6. 체육대회 : 5. 2 산업은행 연수관(강남구 하일동)

6. 議決된 案件

<1> 1976年度 決算

(1975.12.20~76.12.1)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기 본 수 입	293,000	246,000	회 의 비	154,000	148,100
월 회 비	288,000	241,000	정 기 총 회	100,000	100,000
입 회 비	5,000	5,000	회 의 비	54,000	48,100
사 업 수 입	1,334,400	1,628,700	경 상 비	62,400	14,000
방학강습수수료	1,204,400	1,492,500	사 무 비	62,400	14,000
기능검정수수료	130,000	136,200	수 용 비	5,000	0
찬 조 금	420,000	600,330	사 업 비	2,141,000	1,499,420
잡 수 입	25,803	108,000	방학 이용 강습	975,000	882,500
이 월 금	926,152	926,152	속기 경기 대회	130,000	0
			기능 검정 시험	144,000	109,520
			퇴 지 발 간	444,000	253,800
			속기 학술 연구	102,000	5,000
			각급 학교 및 사회 단체 속기 강습	96,000	3,600
			체 육 대 회	250,000	245,000
			관 공 비	200,000	187,150
			예 비 비	436,955	305,910
			이 월 금		1,354,602
계	2,999,355	3,509,182	계	2,999,355	3,509,182

<監査報告書>

定款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1976年 12月 1日 현재 本協會의 財政現況을 監査한 결과 決算書와 相違없음을 報告합니다.

1976. 12. 11

監事 金 善 弼

<2> 1977年度 豫算

세		입	세		출
관	항	예	관	항	예
		산			산
기	본 수 입	293,000	회	의 비	204,000
월	회 비	288,000	정	기 총 회	150,000
입	회 비	5,000	회	의 비	54,000
사	업 수 입	1,660,500	경	상 비	62,400
	방학 강습 수 수료	1,492,500	사	무 비	62,400
	기능 검정 수 수료	168,000	수	용 비	5,000
찬	조 금	500,000	공	과 금	5,000
잡	수 입	180,000	사	업 비	2,239,000
이	월 금	1,354,602	방	학 이 용 강 습	1,065,000
			속	기 경 기 대 회	130,000
			기	능 검 정 시 험	152,000
			회	지 발 간	444,000
			속	기 학 술 연 구	102,000
			각	급 단 교 및 사 회 단 체	96,000
			강	습	
			체	육 대 회	250,000
			관	공 비	120,000
			적	립 금	1,000,000
			예	비 비	357,702
계		3,988,102	계		3,988,102

<3> 改選된 任員

定款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滿了된 任員을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 |                 |                     |
|-----------------|---------------------|
| 會 長 金龍泰(國會議員)   | 副 會 長 鄭源道(國會速記擔當官)  |
| 顯 問 李鎬振(國會事務總長) | 理 事 長 崔錫模(國會內務委法制官) |
| 〃 權孝燮(國會議員)     | 總務·財政部長 金基英         |
| 〃 吉基祥(國會事務次長)   | 金亨坤                 |
| 〃 崔興俊(國會專門委員)   | 涉 外 部 長 宋基喆         |
| 〃 劉龍珪(國會專門委員)   | 河良培                 |

顧問 趙琮鉉(國會議事局長)  
 指導委員 姜駿寅  
 " 張基泰  
 " 金星漢  
 " 李東根  
 " 金鎮基

事業部長 黃遠河  
 外國語部長 姜宗遠  
 研究委員長 金允洙  
 資格審査委員長 全海成  
 無任所 鄭明吉  
 監事 金永春  
 " 高太仲

## 속기요금안내

1977.1.1 시행

속기 기본료	1시간당	30,000원
녹음재생	"	40,000원
전문분야	"	50,000원
외국어속기	"	7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출장시에는 상기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0,000원씩 가산한다
-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이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한다

삼담 大韓速記協會

#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定款

1969. 4. 14 制定  
1970. 12. 30 改正  
1972. 6. 15 改正  
1976. 12. 11 改正

## 第 1 章 總 則

第 1 條(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以下 “本協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 條(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필요한 곳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3 條(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結體로서 速記 文化學術의 연구발전 및 普及과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도모하여 時代의 使命感에 副應 記錄報國과 公益에 奉仕함으로써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爲 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3.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4.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5. 速記技能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速記界와의 交流에 關한 事項

## 第 2 章 會 員

第 5 條(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이해하고 物心兩面으로

후원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에 추대된 者

2. (正會員) 正會員은 本協會의 會規에 의한 자격심사에 合格된 者
3. (準會員) 準會員은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습득한 者나 습득중에 있는 者中 理事會 決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本協會운영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2. (正會員) 正會員은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 또는 總會의 議決事項 遵守와 費비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3. (準會員) 準會員은 總會에서 意思 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 7 條(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 書를 제출한다.

第 8 條(懲戒) ①會員에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理事長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징계할 수 있다.

1. 第 6 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害를 끼칠 때

② 前項의 지계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譴責

3. 資格停止

### 第3章 任 員

第9條 本協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1. 會長 1人

2. 副會長 1人

3. 理事長 1人

4. 理事 12人(會長 1人 副會長 1人  
理事長 1人 포함)

5. 監事 2人

第10條(選出)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第11條(任期) ①任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다만 監事는 2年으로 한다.

②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③ 任員의 補選은 理事會에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2條(任員의 職務) 任員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 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2.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13條(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理事長이 指定하는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4條(理事) 理事는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關한 事項을 審議 議決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5條(監事) 監事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1. 本協會의 財產事項 監査

2. 理事會의 운영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의 監査

3. 第1號 및 第2號의 監査結果 不正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할 때에는 理事會에 그 是正을 要求하고 總會 및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4. 第3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 및 總會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5. 本協會의 財產事項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關한 事項에 대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서 의견을 進출할 수 있다.

### 第4章 總 會

第16條(構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議決機關이며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7條(召集) ①總會는 定期總會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定期總會는 年1回 12月中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임시총회는 正會員中 3分の 1 以上の 요구가 있을 때 또는 理事會의 議決로써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8條(定足數) ①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會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  
분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議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9條(議決事項) 總會에서 議決하는 事  
項은 다음과 같다.

1. 任員選出
2. 法人의 解散 및 定款變更
3. 財産의 處分 賣渡·贈與·擔保·貸  
與·取得·起償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事業計劃의 承認
6. 其他 主要한 事項

第20條(議決除斥事由) 總會 議決의 除斥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任員의 就任 및 解任에 있어 그 自身  
에 관한 事項
- ②金錢 및 財産의 授受에 關聯되는 事  
項으로서 本協會와 利害가 相反되는 者  
에 관한 事項

## 第5章 理事會

第21條(構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行機  
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長과 理  
事로 構成한다.

第22條(召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때나 在籍理事 4人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23條(議決定足數)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  
否同數인 때에는 理事長이 決定한다.

第24條(機能) 理事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業務의 執行

2. 事業計劃의 運營
3. 豫算決算書의 作成
4.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의 執行
5. 定款 改正案의 提出
6. 財産管理
7. 定款에 外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  
項
8.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作成
9. 理事長이 附議하는 事項

## 第6章 財 政

第25條(財政) ①本協會의 財産은 이물  
基本財産과 普通 財産으로 區分한다.

1. 基本財産은 法人設立時 그 設立者가  
出捐한 財産과 理事會에서 基本財産  
으로 定한 財産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 1回 그 目錄을 作成  
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②基本財産을 賣渡 贈與 質貸 交換 또  
는 擔保로 提供하거나 起償하는 때에는  
미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6條(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入으  
로 그 歲出에 充當한다.

1. 會費
2. 補助金
3. 贊助金
4. 其他收入

第27條(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28條(歲入歲出豫算) 本協會의 歲入歲  
出豫算은 每 會計年度 開始 1個月前까  
지 편성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總  
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9條(會計監査) 監事는 本協會의 會計  
에 관한 事項을 年 2回 以上 監査한다.

第30條(任員의報酬) 任員의報酬는 總會에서 決定하되 事業運營을 全擔하는 理事를 除外한 任員에 對하여는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第7章 執行部署

第31條(部署)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 1人을 두며 理事가 兼任할수 있다.

1. 總務部
2. 財政部
3. 涉外部
4. 事業部
5. 外國語部
6. 研究委員會
7. 資格審査委員會

第32條(各部署의 業務分擔) 各部署의 業務分擔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33條(各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分の 2 以上の 찬성으로 選出한다.

## 第8章 補 則

第34條(解散) 本協會를 解散하고자 할때에는 總會에서 재적회원 3分の 2 以上の 찬성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5條(殘餘財産) 本協會가 해산할 때에는 그 殘餘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似한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第36條(定款改正) ①本協會의 定款改正案은 理事會 決議나 正會員 20名 以上の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수 있다.

②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の 2 以上の 찬성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부장관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7條(事業計劃書等の報告) 翌年度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當該年度의 事業實績書 및 收支決算書는 會計年度 終了後 2個月 以內에 財産目錄과 業務現況 및 監査結果報告書를 첨부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提出한다.

第38條(會規) 다음 各號의 사항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本協會의 會規로 定한다.

1. 支部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2. 事務部署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事項
3. 會議 召集 운영에 관한 事項
4.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 附 則

①本協會는 大韓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그 業務를 引受한다.

②(經過措置)

1. 이 定款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團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써 그 效力이 發生한다
2. 創立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協會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③이 定款은 法院登記日부터 施行한다.

# 會 務 日 誌

76. 12. 11 第10回 定期總會
1. 76年度 決算承認 及 監査報告
  2. 77年度 事業計劃(案) 及 豫算案承認
  3. 定款改正
  4. 任員改選
12. 24 5人銓衡委員會
12. 27 第75次 理事會
12. 28 會長訓 新任人事
12. 30 第76次 理事會
77. 1. 5 第20回 冬季講習接受
1. 12 第20回 冬季講習開講
1. 18 勞動廳 技能檢定課 訪問  
技能士 試驗科目 調整 依頼
1. 21 第77次 理事會
1. 22 勞動廳 技能士試驗中 速記科目 廢止意見書 提出
2. 1 冬季講習 修了式
2. 7 第78次 理事會
2. 28 안희영 會員 表彰牌 授與式(會長)
3. 8 第79次 理事會
4. 17 第12回 資格檢定試驗 實施
4. 20 第80次 理事會
4. 21 任員就任 要請書 接受
5. 10 法院登記 完了
6. 10 第81次 理事會
7. 7 第82次 理事會
7. 18 第21回 夏季講習接受
7. 20 第83次 理事會
7. 25 第21回 夏季講習 開講
8. 13 第21回 夏季講習 修了式
9. 2 第84次 理事會



## 編輯後記

○가을은 思索의 계절이다. 休日 하루쯤은 近郊山이라도 올라 日常事를 잊고 大自然과 호흡하며 지난 여름 村家에서 바라보던 밤하늘에 가로지른 銀河水와 찬란하게 빛나던 술한 별들의 향연을 추억하고 生生流轉하는 삶의 나침반을 돌아보아 內的成熟을 기함도 뜻깊으리라.

○이번 號에는 韓國速記史발굴을 위한 기획으로 速記界에 큰 자취를 남기신 張基泰指導委員님과 金天漢선생님의 懷古談을 실었다. 속기와 더불어 哀歎의 一生을 같이한 이분들의 健安을 기원한다. 또한 鄭源道副會長님의 卷頭言은 바람직한 速記人像으로서 평소 自己啓發로 平生教育을 지향해 가는 속거인의 자세를 定立해줄 것으로 믿는다.

—良—

### 速記界 <第 18 號>

1977年 10月 10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河	良	培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1.

Tel 7802-2471~6

안녕하십니까?

성장하는 國際社會 속에서 韓國을 찾는 外國人 바이어들과 韓國企業間의 좀 더 圓滑한 意思疏通 및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자 신속·정확한 Language Service 및 Secretarial Service를 本學院 並設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 및 무역관계 회의 등 모든 분야의 國際的인 사업에 필요한 通譯士, 速記士, 타이피스트 案內員 등 用役서비스도 함께 並行해서 일할 자세에 임해 있습니다. 서비스를 업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貿易會社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  
통역, 번역, 외국어 편지쓰기 대행
1. 外國人 바이어들을 위한 서비스  
통역, 가이드, 속기, 타이핑, 임시비서업무
1. 國際會議 用役서비스  
동시통역사, 속기사, 타자수, 안내원등
1. 수준급 비서 알선

## 스타 서비스

### 學 院 案 內

#### 한글 速記科

1. 本 科 .....3個月
1. 研修科 .....9個月
1. 資 格 .....高卒 以上

#### 英文速記科

1. 本 科 .....2個月
1. 研 修 .....4個月
1. 資 格 .....高卒 以上

◆전담 : 金天漢 創案者 직강

◎전담 : 盧英民 院長 직강

官認 新世界速記學院 (22) 3 3 3 0

(市警뒤 해남빌딩 옆 20m)